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ELARUS

벨라루스 개황

2020. 2.

▶ 벨라루스 국기



< 국기 해설 >

국기의 왼편 문양은 벨라루스의 전통문양으로(과거 독일 기사단과의 전쟁 중에 피가 묻은 흰 붕대가 승리의 표상으로 사용된 데에서 유래)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그 정신의 계승, 국민의 단합을 나타내며, 초록은 벨라루스의 대지(숲과 들판), 빨강은 지나간 시대의 영광을 상징한다.

▶ 벨라루스 국가문장



< 문장 해설 >

문장 중앙의 떠오르는 태양 황금빛 광선 가운데 초록색 선으로 이루어진 지도 형상은 벨라루스 영토를 뜻한다. 태양 아래의 지구는 벨라루스가 모든 민족을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좌우의 클로버와 아마꽃은 기억의 상징이자 선후대의 불가분한 연결을 뜻한다. 위쪽의 붉은 별은 인간과 인류의 상징이자 용기의 징표이며, 별의 다섯 개 꼭지점은 5대륙의 우정을 상징한다.

▶ 벨라루스 전도





Part I. 국가개관 및 역사 9

- 1. 벨라루스 기본 현황 10
- 2. 벨라루스의 역사 13
- 3. 인구 18
- 4. 언어 및 종교 19



Part II. 정치·국내정세 21

- 1. 정치 역사 22
- 2. 정치체제 25
- 3. 최근 국내정세 28
- 4. 민주주의·인권 문제 29



Part III. 대외정책·국방 31

- 1. 대외정책 기초 32
- 2. 러시아와의 관계 33
- 3. EU·미국·일본과의 관계 42
- 4. 중국과의 관계 44
- 5. 제3세계·기타 관계 46
- 6. 국방정책 47



Part IV. 경제 동향 49

- 1. 거시경제지표 50
- 2. 최근 경제상황 및 경제잠재력 55
- 3.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58

Part	V.	산업 동향	59
		1. 벨라루스 산업 개요	60
		2. 정부 산업정책 기조	62
		3. 산업 구조	64
		4. 주요 산업	65
Part	VI.	한·벨라루스 관계	75
		1. 정무 관계	76
		2. 경제·통상 협력 관계	82
		3. ICT 협력 관계	85
		4. 고려인·인적 교류 현황	86
		5. 교육분야 협력	87
		6.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88
		7. 북한과의 관계	89
Part	VII.	벨라루스 각 주 개황 및 명소	91
		1. 각 주 개황	92
		2. 민스크시 소재 주요 명소	98
		3. 민스크시 이외 지역의 주요 명소	103
Part	VIII.	부록	107
		1. 주요 인사 인적 사항	108
		2. 국제지수로 보는 벨라루스	114





1. 국가개관 및 역사

1. 벨라루스 기본 현황
2. 벨라루스의 역사
3. 인구
4. 언어 및 종교

1. 벨라루스 기본 현황

- 국 명 : 벨라루스 공화국(Republic of Belarus)
- 수 도 : 민스크(인구 198만명)
- 주요도시 : 고멜(54만명), 모길료프(38만명), 비텡스크(38만명), 그로드나(37만명), 브레스트(35만명)
- 위 치 : 러시아(북동), 우크라이나(남), 폴란드(서), 리투아니아(북서), 라트비아(북)와 각각 접경
- 국 경 : 2,900km(라트비아-141km, 리투아니아-502km, 폴란드-407km, 러시아-959km, 우크라이나-891km)
- 해 안 선 : 없음(내륙국)
- 정 체 : 공화제(대통령제)
- 면 적 : 207,600km²(한반도 면적과 비슷)
- 자연조건
 - 지 형 : 대부분이 평지, 산림(영토의 34%) 또는 습지
 - 기 후 : 겨울은 춥고 여름은 시원하면서 건조
 - 연간강우량 : 560~660mm
 - 연간강수량 : 600~700mm
 - 연평균기온 : -4.5℃(1월), +17℃(7월)
- 인 구 : 949만명(2018, 벨라루스 통계청)
 - 벨라루스인 83.7%, 러시아인 8.3%, 폴란드인 3.1%, 우크라이나인 1.7%, 기타 3.2%
 - 72.4%가 도시 거주
- 언 어 : 벨라루스어(국어), 러시아어(국어)

- 종교 : 러시아정교 82%, 가톨릭 12%, 기타(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6%
- 국경일 : 7월 3일(독립기념일)
- 화폐 : 루블(Belarusian Ruble)
 - 1USD = 약 2.09BYR(2019.9월)
- 행정구역 : 6개주(Oblast)와 특별행정구역(민스크시)

주	중심지	면적(k㎡)	인구(명)
민스크주	민스크시	40,200	1,426,500
그로드나주	그로드나시	25,000	1,043,700
브레스트주	브레스트시	32,300	1,384,500
고멜주	고멜시	40,400	1,415,700
모길료프주	모길료프시	29,000	1,058,800
비텡스크주	비텡스크시	40,100	1,180,200
민스크시	-	307.9	1,982,400

<2018, 벨라루스 통계청>

※ 민스크시는 특별시로 민스크주와 행정상 별도의 도시이며 민스크주의 주도(중심지)로서 행정중심지이다.

- 문맹률 : 0.4%
- GDP : 596억불(2018, IMF), 1인당 명목 GDP : 6,310불
- 군사력 : 육군 29,500명, 공군 11,000명, 특수부대 6,000명
 - 정규군 이외에 내무부 보안군, 국경수비대 등 준군사조직 보유
- 시차 : 민스크(+3)-서울(+9)간 6시간 차이

벨라루스라는 국명의 기원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에 “백러시아(White Russia)”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흰색을 뜻하는 “벨라”와 “루스”가 합쳐진 말인데 그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설이 알려져 있다.¹⁾

- (1)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동슬라브족 거주지역(Ruthenia)중 일찍 기독교화된 슬라브족 거주지를 백루스(White Ruthenia), 기독교화되지 않은 원시 슬라브족 거주지를 흑루스(Black Ruthenia)라고 불렀다는 설
- (2) 흰 옷을 즐겨입던 동슬라브족 거주지를 벨라루스라고 불렀다는 설
- (3) 13세기 몽골군의 침입시 몽골군의 침략을 받지 않아 순수성(흰색)을 보존한 지역을 벨라루스라고 불렀다는 설
- (4) 벨라루스는 15세기에 모스크바대공국이 점령한 노브고로드 공국 지역을 지칭한다는 설

한편, 루스(Ruthenia 또는 Rus)라는 명칭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중세 이래 동슬라브족이 거주하던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는데, 모스크바 대공국이 이반 4세 이후 키예프루스의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로부터 동슬라브족 거주지역을 탈취하고 전 동슬라브지역의 종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루스의 국가, 즉 “러시아”라고 자칭했다. 따라서, 벨라“루스”라는 명칭은 현재의 러시아와는 무관하다고 한다.

.....
1. <http://en.wikipedia.org/wiki/Belarus>

2. 벨라루스의 역사

벨라루스에 공국들이 세워진 것은 6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다. 폴라츠크 공국, 투로프 공국, 핀스크 공국, 민스크 공국 등 슬라브족 국가들이 창설되었는데, 이들은 노르만족 계통인 루스족의 도움을 받아 창설된 키예프공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키예프공국은 1240년 몽골의 침략으로 붕괴되어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오늘날의 벨라루스에 해당되는 공국들은 몽골에 항거하여 그로드나에서 키예프에 이르는 지역을 통일한 리투아니아대공국에 병합된다. 리투아니아대공국²⁾은 1410년 폴란드와 동맹하여 독일기사단(튜튼기사단)을 격파하고 동유럽 북서부의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리투아니아대공국은 이미 1386년 폴란드와의 혼인동맹을 통해 동군연합(Personal Union)을 이루고 있었는데 폴란드-리투아니아 동군연합은 1569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³⁾으로 발전한다.



리투아니아대공국(13-15세기) 및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16세기) 지도 ⁴⁾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15세기 말 이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키예프공국의 고토를 노린 러시아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3차에 걸친 폴란드 분할을 통해 러시아,

2. 리투아니아대공국의 공식국명은 Grand Duchy of Lithuania, Rus and Samogitia 인데 약칭해서 리투아니아 대공국이라고 한다. 벨라루스 역사에서는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현재의 리투아니아공화국과는 전혀 다른 국가이며 벨라루스인들이 국가의 건설과 운영에서 주된 역할을 했다고 본다.
3.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오늘날의 연방국가에 해당하는지, 국가연합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당초 양국이 양립한 국가로 시작되었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점점 폴란드의 영향이 강해졌다고 한다.
4. 출처: Wikipedia(영어판)의 “Grand Duchy of Lithuania”와 “Polish Lithuania Commonwealth” 이들 지도상에서 보듯이,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는 국토의 중심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1795년에 최종적으로 분할되었다. 벨라루스는 이때 대부분 러시아에 편입된다.⁵⁾

벨라루스는 나폴레옹 휘하 프랑수군의 러시아 침공과 러시아군의 반격(1812년)시 진격로가 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군과 러시아군의 주전장으로 격전지가 되었다.

벨라루스는 독일과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을 휴전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체결 직후인 1918.3.25. 독일군의 점령 하에서 벨라루스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그러나, 독일의 패배와 독일군의 철군 이후 러시아 적군이 진주하면서 소비에트 정권이 창설되어 1919년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이 선포된다.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1919.2월-1921.3월까지 계속된 소련-폴란드 전쟁은 벨라루스의 영토를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렸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연합국의 최고사령부는 1795년 제3차 폴란드 분할 이후 러시아와 프로이센 국경을 기준으로 커즌라인(Curzon Line)이라고 하는 소련-폴란드 휴전선을 제안했다.⁶⁾ 그러나, 소련 내전의 혼란 속에서 옛 폴란드 영토(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고토)에 대한 지배권을 찾으려는 폴란드와 공산혁명의 완수를 위해 폴란드 동부지역의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했던 소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1919.2월 소련-폴란드 전쟁이 발발했던 것이다. 소련-폴란드 전쟁은 1921.3월 리가조약을 통해 종결되었는데 이 조약으로 소련-폴란드 국경은 커즌라인에서 250km 정도 동쪽으로 이동한 곳으로 정해졌고, 벨라루스의 상당부분이 폴란드 영토로 편입되었다.

벨라루스는 이렇게 하여 서부 국경을 확정하고 1922.1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랜스카프 카즈공화국과 함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창설한다.⁷⁾ 그리고, 스탈린 시대인 1920-30년대에는 5개년 계획으로 농업집단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은 벨라루스의 역사에 또 한 번의 큰 획을 긋게 된다. 1939.9.1.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데 이어 소련이 1939.9.17. 폴란드를 침공하여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는데

5. <http://en.wikipedia.org/wiki/Belarus>

6. 이 경계선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 폴란드위원회가 소련-폴란드 양측에 제안했는데,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대표하여 소련-폴란드측에 제안서를 제출한 영국 외교장관이던 George Curzon (Curzon of Kedleston 이라고도 한다)경의 이름을 따서 Curzon line이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폴란드의 국경선 또한 Curzon line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7. 소련 건국시 소련은 상기 4개 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되었으나, 1936년에 트랜스카프카즈공화국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소련 명칭 그루지야) 등 3개국으로 분리되고, 중앙아시아의 5개 연방공화국이 창설되면서 11개 공화국으로 발전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트3개국과 몰도바(소련 명칭 몰다비아)가 가입하면서 소련은 15개국으로 확대된다.

이때 소련군이 점령한 폴란드 동부지역은 1939.11월 독일과 소련간 비밀협약에 의해 벨라루스의 영토로 인정받게 된다.⁸⁾

그 후 1941.6월 독일군의 선제공격으로 독일-소련 전쟁이 발발하자, 벨라루스가 독일군의 진격로가 되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국인 독일과 소련간 전면전으로 소련의 인명피해만 1천만 명이 넘었는데, 독일과 소련의 중심부로 향하는 이동로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벨라루스가 그 사이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는 상상할 만하다.

벨라루스는 1941.7월 독일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1943.2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은 소련군은 1944.7.3. 민스크를 탈환했고 그해 가을 무렵 벨라루스 전역을 탈환했다. 벨라루스는 독일이 점령했다가 다시 소련이 탈환하기까지 약 3년간 2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산업시설의 80% 이상이 파괴되는 물적 피해를 입었다. 벨라루스인들은 나치의 혹독한 점령 하에서도 자체적으로 유격대(파르티잔, 빨치산)를 조직하여 치열한 만나치 투쟁을 전개했다.



행군중인 벨라루스 파르티잔(1944)⁹⁾



가족들과 피난처에 함께 있는 파르티잔¹⁰⁾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1941-1944년간 활동한 벨라루스 파르티잔은 모두 약 374,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도시 지하 저항조직, 파르티잔 예비군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¹¹⁾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벨라루스의 국경은 현재의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으로 확정되었으며, 소련 정부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전후복구와 산업부흥을 통해 소련내 주요 제조업지역으로

8. <http://en.wikipedia.org/wiki/Belarus>

9. 위의 글

10. http://www.belarusguide.com/history1/WWII_partisan_resistance_in_Belarus.htm

11. http://en.wikipedia.org/wiki/Belarusian_partisans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1986.4.26.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벨라루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참사를 당하게 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피해

1986.4.26.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벨라루스의 근현대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최대의 국가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체르노빌은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북부에 위치해 있지만 벨라루스 국경에 가까이 있고 사고발생 당시 동남풍을 타고 방사능물질이 북서쪽, 즉 벨라루스쪽으로 확산되면서 벨라루스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실질적인 최대 피해국이 되었다(체르노빌에서 유출된 방사능의 70%가 벨라루스에 낙하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벨라루스는 현재까지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6,200km²의 지역을 외부와 격리,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1,700km² 지역을 격리지역으로, 4,500km²의 지역을 주민소개지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벨라루스 비상사태부는 체르노빌 사고의 수습·처리비용, 오염으로 인한 물적 손실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은 약 2,350억 달러, 사고 오염지역으로부터 소개시킨 주민은 13만 8,000여 명으로 추산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오염지역을 떠난 주민은 2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법, 방사능안전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오염 감시활동, 자연환경 감시 활동, 방사능오염 제거 및 농축산물 오염정화 활동, 오염된 산림지역 격리 조치, 피해주민 정기검진, 원전사고 관련 연구·홍보활동 등 사고 후유증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벨라루스는 독립국가로 재탄생했다. 1990.3월 벨라루스 최고회의 선거 결과 독립파가 얻은 의석은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벨라루스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계속 높아져만 갔고 1990.7.27.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벨라루스 SSR)은 국가주권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벨라루스 SSR은 소련 군부의 쿠데타 실패 직후인 1991.8.25. 벨라루스 공화국(Republic of Belarus)으로 개칭하고 공식적으로 독립했으며, 스타니스라브 슈스케비치(Stanislav Shushkevich) 최고회의제1부위원장을 초대 최고회의의장(국가원수)으로 선출한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함께 1991.12.8.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의 결성을 선포하게 된다.

1994.3월 대통령제를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1994.7월 선거결과 당시 무명에 가까운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후 5연임에 성공하며 현재까지 집권 중이다.

벨라루스는 유엔의 창설회원국

벨라루스는 유엔의 창설회원국이다. 그런데, 벨라루스가 공식적으로 독립한 날은 1991.8.25.이고 소련이 해체된 일자는 1991.12.8.인데 어떻게 벨라루스가 독립도 하기 전인 1945년에 유엔회원국이 될 수 있었을까?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로서 유엔이 구상 되었는데, 소련은 1944년 헌법을 개정하고 “소련의 각 연방공화국(소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공화국)은 독자적인 외교권을 갖는다”는 헌법규정을 근거로 소련 연방명의로 유엔 회원국 자격 이외에 15개 소련 연방 구성공화국 들이 모두 별도로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당시 소련 대표는 각 연방공화국의 지위는 아직 공식 독립국은 아니지만 자치령(Dominion)이었던 캐나다 등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으며, 실제로 인도, 필리핀 등이 공식 독립을 획득하기 이전에 이미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는데, 물론 미국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들 자치령과 소련의 연방공화국은 다르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방진영과 소련 간 긴 교섭 끝에 소련 연방공화국 중 반나치 투쟁에 공헌한 바가 큰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유엔회원국으로 인정되었으며, 벨라루스는 1974-75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했다.

3. 인구

벨라루스 통계청에 따르면, 벨라루스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2018년 기준 약 949만 명으로 집계된다. 남녀 성비는 0.87:1인데 자연성비가 1.06: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비불균형은 20세기 전쟁과 같은 격변기의 여파로부터 벨라루스 사회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이 있다.

평균 기대수명은 약 74.4세이며 남성 69.3세, 여성 79.2세이다. 인구 전체의 평균연령은 39.7세로 알려져 있다.

인구 구성을 보면 벨라루스인 83.7%, 러시아인 8.3%, 폴란드인 3.1%, 우크라이나인 1.7%, 기타 소수민족이 3.2%를 차지하고 있다.

4. 언어 및 종교

1. 언어

벨라루스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벨라루스의 공용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벨라루스가 독립국이며 벨라루스어가 따로 있고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등 다른 CIS 국가들이 자국 고유어를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니 벨라루스도 러시아어보다 자국어를 적극 장려할 법도 한데, 러시아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으니 그런 질문을 할 만 하다.

벨라루스에서는 러시아어와 벨라루스어가 모두 국어(national language)이다. 벨라루스어는 당연히 벨라루스의 국어이고, 러시아어도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국어로 채택되었다. 일상 생활에서는 러시아어가 벨라루스어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지만 길거리의 주요 도로표지판이나 관공서 건물 표지판에는 벨라루스어가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구소련권내 러시아어 공용 실태

러시아어는 구소련 지역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각 나라마다 러시아어의 지위는 서로 다르다.

- 국어(national language): 러시아, 벨라루스
- 공용어(official language):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통용어(language for interethnic communication): 타지키스탄

여타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어만을 국어로 지정하고 러시아어는 공용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러시아어가 일상적으로 특히 구소련시대를 거친 장년층을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보면 벨라루스는 러시아 이외에 러시아어가 공식적인 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렇다면 벨라루스어는 러시아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선 동슬라브어¹²⁾라는 점에서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는 서로 가까운 언어이다. 특이한 것은 벨라루스어를 구사하는 벨라루스인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러시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러시아어를 학습하기도 비교적 쉽다고 하는데, 러시아인들은 벨라루스어를 따로 학습해야 이해할 수 있고 벨라루스어를 배우기도 그만큼 쉽지는 않다고 한다. 이는 고대 슬라브어가 오늘날과 같이 분화하기 전의 옛 모습을 벨라루스어가 비교적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2. 슬라브족은 생활권에 따라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분류된다. 동슬라브족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인, 서슬라브족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인, 남슬라브족은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인 등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벨라루스라는 이름으로 주권국가를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는 벨라루스가 어떻게 러시아어에 흡수되지 않고 자국어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벨라루스라는 명칭을 갖는 국가는 없었지만 벨라루스인들은 리투아니아대공국 또는 리투아니아-폴란드 연방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해 왔었다. 제정러시아 치하에서도 벨라루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벨라루스어가 사용되었고 1917년 공산혁명 이후에도 민스크 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러시아어가 활용되었다고 한다.

다만, 소련시대 이래로 러시아어가 중심언어로 일상어가 되면서 벨라루스어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소련시대에 소수민족 문화 보존정책으로 벨라루스어 교육이 장려되고 학교에서도 러시아어보다 벨라루스어를 더 많이 가르쳤다고 하지만 러시아어는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소련 붕괴와 주권회복 후에도 러시아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벨라루스의 초중고 각급학교에서는 벨라루스어 보존 차원에서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를 동일한 비중으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한 학년의 전 과목을 벨라루스어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2. 종교

벨라루스 전체 인구의 약 80%가 러시아정교의 신자이다. 벨라루스 정교회는 러시아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청(patriakhat) 벨라루스관구(ekzarkhat)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밖에도 벨라루스에서는 가톨릭교, 개신교, 유대교 등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II. 정치 · 국내정세

1. 정치 역사
2. 정치체제
3. 최근 국내정세
4. 민주주의·인권 문제

1. 정치 역사

1. 제1대 최고회의의장(국가원수) 슈스케비치 의장 시기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¹³⁾

1991.8월 구소련 정변(군사쿠데타 불발)의 여파로 구소련 연방공화국들의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벨라루스 최고회의는 1991.8.25. 핵물리학자 출신인 스타니슬라브 슈스케비치(Stanislav Shushkevich) 최고회의 제1부의를 초대 최고회의의장(국가원수)으로 선출한다.

슈스케비치 의장은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인근에서 1991.12.8.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및 레오니드 쿠츠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벨라버자 합의(Belavezha Accords)를 이루어내고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IS)의 창설을 주도한다. 또한, 슈스케비치 의장은 구소련 해체와 함께 벨라루스 영토에 남겨진 81기의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아무 조건없이 러시아로 반환하는데 합의한다.

슈스케비치 의장은 전반적으로 친서방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민주개혁에도 적극적이었으나 구소련 시절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회의 강력한 저항을 넘지는 못했다. 1993.7월 의회는 집단안전보장조약기구(CSTO) 창설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슈스케비치 의장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된다. 그러나 1993년 말 의회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의회반부패위원장 주도 하에 국가재산 횡령 등을 이유로 불신임투표를 통해 슈스케비치 의장을 탄핵했고 슈스케비치 의장은 1994.1.26. 최고회의 의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2. 제2대 국가원수 그리브 시기

1994.1.28. 벨라루스 의회는 제2대 최고회의의장으로 메치슬라브 그리브(Mechislav Grib) 국가안보·범죄퇴치위원장을 선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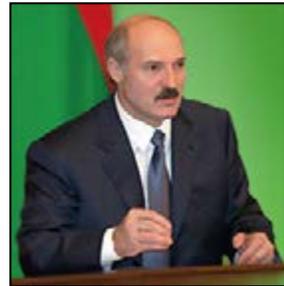
1994.3월 벨라루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제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새 헌법을 채택한다. 1994.7월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알렉산더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반부패위원장이 초대 민선대통령(임기 5년)에 당선된다.

13. http://en.wikipedia.org/wiki/Stanislav_Shushkevich

3. 초대 민선대통령 루카셴코 대통령 시기

가. 개헌 및 대통령 권한 강화

벨라루스는 1995.5월과 12월 선거를 통해 총 260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의원을 선출한다.¹⁵⁾ 그러나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과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권한 행사에 반발한 의원간 대립 결과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1996.11.25. 대통령 권한강화 및 임기연장(초대 대통령은 5년에서 7년으로), 양원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 및 서유럽은 이러한 헌법 개정이 불법적이라고 비난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새 헌법에 따른 의회(상·하원)는 1997.1월에 출범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¹⁴⁾

이 시기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와의 국가연합을 적극 추진했다.

나. 재선

2001.9.9.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76%를 획득하여 야당의 곤차리크 후보(16%)와 가이두케비치 후보(2.84%)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러시아 등 CIS 회원국들은 이 선거결과를 인정했으나 미국, EU, 일본 등 서방측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 3선

2004.10월 대통령 3기연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 결과 77.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벨라루스 야당과 미국, EU 등 서방측은 국민투표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14. <http://president.gov.by/>

15. 잔여 공석은 1996.11월 보궐선거에서 선출하기로 합의되었다.

개정헌법에 따라 2006.3.19.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83%를 획득하여 6.1%를 획득한 야당연합 후보 밀린케비치(Alexander Milinkevich)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역시 러시아는 이 선거 결과를 즉각 인정했으나,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반민주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라. 4선

2010.12.19. 대통령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유효투표의 79.67%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이 선거 또한 러시아와 CIS 국가들은 그 결과를 인정했으나 미국과 EU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 선거라고 비난했고 선거부정 관련자들과 야당탄압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마. 5선

2015.10.11.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83.49%라는 본인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5선 연임에 성공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2015년의 대선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평화롭게 실시되었으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적 선거로 볼 수는 없으며 민주적 선거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2개월 앞둔 2015.8월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방이 지속적으로 석방을 요구해온 정치범 6명 전원을 특별 사면했는데, 이어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도 평화롭게 실시되자 EU는 2015.10월 대벨라루스 제재를 잠정 정지한 데 이어 2016.2월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하여 벨라루스-서방간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2. 정치체제

1. 개요

벨라루스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된 대통령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다.

2. 입법부

입법부는 1996.11월 채택된 개정헌법에 따라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Plata Predstaviteley, House of Representatives)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임기 4년의 1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개헌안 발의, 법률안 심의, 정부불신임안 발의, 총리 임명동의권 등을 갖는다.

상원(Soviet Respubliki, Council of Republic)은 지역대표제 등으로 선출된 임기 4년의 6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스크시와 6개 주(Oblast)가 각각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8명을 임명한다. 상원은 개헌안 승인,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검찰총장·중앙은행장 임명동의권 등을 행사한다.

3. 사법부

사법부는 헌법재판 및 대통령 탄핵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와 민사·형사·행정·군사소송을 담당하는 일반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대통령·의회·대법원 등이 제기하는 위헌법률심사와 대통령 탄핵 등 헌법문제를 심의·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2명이며, 대통령과 상원이 각 6명씩 임명한다. 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이다.¹⁶⁾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등법원(Regional Court)은 6개 주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각 행정 구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16. 과거에는 경제 사건을 담당하는 최고경제법원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2014.1.1. 대법원으로 통합되었다.

4. 행정부

가. 대통령

대통령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재직중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벨라루스 군최고사령관직을 겸임한다.

나.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

국무회의는 주로 경제 및 산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부총리 5인,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되며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심의는 국무회의 간부회의(Presidium of the Council of Ministers)에서 이루어진다. 국무회의 간부회의는 매월 1회 개최되며, 총리, 부총리 5인, 외교장관, 재무장관, 경제장관, 개발은행이사장으로 구성된다.

다. 국가안보이사회(Security Council)

국가안보이사회는 국가안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합의체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통령행정실장, 안보이사회사무총장, 국가감독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국립은행이사장, 외교장관, 내무장관, 국방장관, 비상사태장관, 재무장관, 수사위원회위원장, 국가안보위원회위원장(KGB, 정보수사기관), 군수산업위원회위원장, 국경위원회위원장, 군총참모장,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6개 주(Oblast)로 구성되며 단체장(주지사)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지사는 주집행위원회(Oblispolkom)의 장으로서 주행정을 관장한다.

6. 정당¹⁷⁾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15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상원의원의 64명 중 46명, 하원의원의 110명 중 94명이 무소속 의원일 정도로 벨라루스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미미하다. 대신 루카셴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의 정치단체인 『벨라야 루스』가 의회 내 최대 정치세력을 이루고 있으며, 상원의원 32명, 하원의원 68명이 소속되어 있다.

정당 현황 및 성격은 아래와 같다.

	정 당	의석수
1	벨라루스 사회체육당 (Belarusian Socialist Sporting Party)	-
2	벨라루스 사회민주당(인민의회) (Belarusian Social Democratic Party "People's Assembly")	-
3	농민당 (Agrarian Party)	-
4	공화당 (Republican Party)	-
5	노동·정의 공화당 (Republican Party of Labor and Justice)	하원 3석
6	벨라루스 애국당 (Belarusian Patriotic Party)	하원 3석
7	벨라루스 공산당 (Communist Party of Belarus)	상원 17석, 하원 8석
8	벨라루스 사회민주당(Gramada) (Belarusian Social Democratic Gramada)	-
9	벨라루스 녹색당 (Belarusian Green Party)	-
10	정의로운 세상 (Belarusian Party of the Left "Fair World")	-
11	보수기독교당 (Conservative Christian Party)	-
12	벨라루스 통합 시민당 (United Civic Party of Belarus)	하원 1석
13	벨라루스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of Belarus)	상원 1석, 하원 1석
14	벨라루스 사회민주 Gramada당 (Belarusian Social Democratic Gramada Party)	-
15	BRF 당 (BPF Party)	-

<자료 출처 : 벨라루스 법무부>

17. <https://ru.wikipedia.org/>

3. 최근 국내정세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7월 첫 직선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5선연임하며 장기집권 중으로,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같은 급격한 자본주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강력한 정부 및 사회통제를 통해 급속한 자유화 및 대외개방을 경계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국가발전을 추진해오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정부 내 부패 척결 및 근무태만 징계¹⁸⁾를 통해 국정 전반을 통제하면서 안정적 경제 발전과 민생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권의 기반이 되는 민심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실업세¹⁹⁾ 반대 시위 이후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2020. 8월 대선을 앞두고 민생안정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
18. 루카셴코 대통령은 반부패법(2015년 제정)에 따른 부패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8년 초 체육관광부 장관과 산림부 장관을 해임했으며, 2018.8월에는 비텡스크 오르샤 구역 개발에 관한 지시 미이행 등을 이유로 총리, 부총리, 유관부처 장관 등을 교체했다.
 19. 벨라루스 정부는 2017년 초 대통령령 3호를 발표하여 벨라루스 국민(18-55세 여성과 18-60세 남성)이 연간 최소 183일 근로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236미불 상당의 실업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시행을 유예했다.

4. 민주주의·인권 문제

루카셴코 대통령의 오랜 집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방은 벨라루스에 대해 민주화와 인권상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벨라루스와 서방국가들 간 외교관계는 결코 쉬운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미국과 EU는 매년 유엔총회에서 벨라루스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하고 있고 유엔인권 이사회는 벨라루스 국별 인권결의 채택을 통해 벨라루스 인권특별보고관을 유지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2016.12월 국가인권계획에 관한 회의(Panel Discussion -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 Human Rights and the 2030 UN Agenda)를 개최하여 벨라루스 인권 계획을 채택하고, 사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8.10월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유럽평의회는 세계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Death Penalty, 10.10)을 맞아 벨라루스에 대하여 사형제도 모라토리엄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벨라루스가 2018.10월 UN인권위원회에 제5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및 사형 등 인권 상황에 대한 벨라루스의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UN인권위원회는 벨라루스가 2016년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국민의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2019.2월 제5회 세계사형폐지총회(5th 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에서도 벨기에는 벨라루스의 사형제도 존속으로 인하여 유럽이 사형제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벨라루스는 민주화와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서방 국가들의 입장을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서방의 인권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서도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유엔의 국별 인권조치(Country Specific Mandates) 채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III. 대외정책 · 국방

1. 대외정책 기조
2. 러시아와의 관계
3. EU·미국·일본과의 관계
4. 중국과의 관계
5. 제3세계·기타 관계
6. 국방정책

1. 대외정책 기조

벨라루스의 대외정책은 △주권, 독립, 영토고권 보전 △비핵화 및 중립주의의 준수를 위한 국제적 보장과 국가안보 강화 △체르노빌 사고 후유증 극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확보 △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자본, 기술, 투자유치 노력 △재외국민 보호 등을 주요 기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대외정책은 벨라루스의 전략적·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벨라루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적 장애물 없이 동유럽평원을 통해 인근국가들과 이어져 있고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전략적·지정학적 요충성과 교통편리성으로 인해 벨라루스는 국제 정세 격변기에는 주변 강대국 간 전쟁터가 되어 왔다. 따라서 벨라루스는 서방과 러시아 중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서지 않는 중립주의를 추구해 왔으며 구소련의 붕괴로 자국 영토에 남게 된 핵무기를 스스로 러시아에 양도하는 등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벨라루스 정부는 친러시아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2010.12월 대선 직전까지는 2009년 EU의 Eastern Partnership에 참여하는 등 러시아와 서방의 사이에서 등거리 정책을 비롯한 외교다변화 정책(Multi-Vector 외교정책)을 추구했으나, 2010.12월 대선 후 EU·미국 등이 대선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제재를 강화하게 되자 친러 중심 정책으로 회귀했다. 이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대선 결과를 인정하면서 원유·가스 등 벨라루스에게는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을 염가에 공급하고 있는 데 기인하며, 현재에도 대러시아 관계는 벨라루스 외교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외교다변화 기조 하에 대서방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중국 등과는 전략적 협력을 통한 외교 외연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 벨라루스는 또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Samuel Huntington은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에서 동서양의 분계선을 대략 1500년경의 기독교·가톨릭교와 동방정교·이슬람교 분계선으로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동방정교와 가톨릭교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동서양의 경계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러시아와의 관계

1. 대러시아 외교 기조

대러시아 외교는 벨라루스 대외정책에 있어 최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민족적·문화적·언어적 동질성, △근대역사 200여년을 공유해 온 역사적·문화적 연대,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에너지·경제협력 등에서 기인한다.

벨라루스는 외교다변화 정책 하에서도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러시아에 에너지 및 경제협력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EU를 모델로 하여 양국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단일의 정치·경제·사법·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연합(Union State) 창설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1997.4월 벨라루스-러시아 연합 조약(Treaty on the Union of Belarus and Russia)을 체결, 주권과 독립을 보전하면서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이어 2000.1.26.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 창설 조약(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State of Belarus and Russia)을 발효시켰다. 2003.3월 벨라루스-러시아 통합위원회는 통합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은 양국간 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단일 통화정책, 외환관리, 관세·조세제도, 기업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정책, 교통·에너지망 구축,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회계시스템, 지도측량·계측시스템, 은행거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동군사방위 체제 구축 등을 주요 협력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합 조약은 국방·군사 분야, 법제의 단일화와 조화, 환경보호 및 환경 안전, 자연재해 정보 및 대응, 과학기술·교육·문화 발전 및 다양한 민족문화 보존, 각종 사회 정책 및 범죄대책 등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으로 정책을 조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연합의 목표와 대상은 실제로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의 성격

통상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복수국가가 개별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능을 국가 연합기구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국가연합기구 없이 정책조율을 거치는 동맹(alliance)보다는 진전되고 체계화된 국가통합 단계이고 △국가가 모든 주권을 단일정부에 양도하고 통합국가의 구성국으로 속하게 되는 연방(federation)에는 못 미치는 통합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은 양국 주권기능의 일부 수행이라는 통상적인 국가연합 기구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연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데, 벨라루스는 동 국가연합을 양국이 주권을 유지한 진정한 국가연합으로 보는 반면, 러시아는 사실상 러시아-벨라루스 연방국가 창설로 보고 있다.²¹⁾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의 조직은 △최고회의, △의회협의회, △각료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최고회의(Supreme State Council)는 국가연합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양국 대통령, 총리, 상하원 의장으로 구성되며 국가연합내 조직기구간 권한범위, 공동예산안 의결, 국가연합 차원의 조약 비준 등 주요사안을 결정하고, 최고회의의 결정(Act)은 전원일치제 원칙으로 채택된다. 최고회의의장은 양국 대통령이 교대로 수임하며 국가연합을 대표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와 교섭할 수 있다.

국가연합의회(Union State Parliamentary Assembly)는 양원제로 벨라루스와 러시아 의회 대표 각 36명(총 72명)으로 구성된 상원(House of the Union)과 보통선거(벨라루스 28명, 러시아 75명)로 선출된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다.

각료회의(Union State Council of Ministers)는 국가연합의 집행기관으로 양국 총리, 외교장관, 재무장관, 경제장관, 국가연합 사무총장(State Secretary of the Union) 등으로 구성된다. 정기회의 시 양국 중앙은행장도 참석하며, 국가연합 차원에서의 공동 예산집행, 단일 조세·재정·여신·통화·외환·물가·무역정책 시행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또한, 국방과 치안 분야, 국민의

21. Audrius Zulus, "Towards A 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 Lithuanian Foreign Policy Review (Foreign Policy Research Center, Lithuania), No. 15-16/2005 pp. 157-158

권리 보장, 범죄, 과학기술, 보건 등 분야에서의 정책조율을 관장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ssion)를 예하에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는 최고회의와 각료회의의 실무 기구로 각 회의의 안건 및 작업 계획의 초안을 구상하고 조약 실행, 국가연합 개발전략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연합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국가연합 관련 프로그램, 프로젝트, 행사를 사전 검토하며 각료 회의에 의견 제출 및 이행 결과를 통보한다.

국가연합 창설 조약에는 국가연합 법원도 창설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현재 실행중인 국가연합 조직상에는 사법문제를 담당하는 단일 사법체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당초 국가연합을 창설하면서, 국가연합 내 초국가적 권한의 기구를 창설하고 국가연합 헌법제정과 대통령 선출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2009년 이후 양국 간 유제품 분쟁, 가스 분쟁, 칼륨비료 분쟁, 축산물 분쟁, 러시아 석유 세제 개편과 관련된 갈등 등으로 인해 국가연합 차원의 통합과정은 지지부진했다.

최근 국가연합 창설 조약 체결 20주년(2019.12.8.)을 앞두고 벨라루스와 러시아 양국 정상은 국가연합 로드맵 마련을 지시하는 등 통합과정 진전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IS내의 분야별 통합·협력 기구

CIS는 구소련 국가들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나 회원국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CIS 회원국 중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기구를 결성하게 되는데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
-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6개국)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
- SCO(상하이협력기구)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지베키스탄, 중국(6개국)

3. 정치·대외관계 협력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국가연합 회의, 연례 외교장관급 정책협의회 분야별 협의회, 매2년마다 개최하는 대외정책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대외정책을 조율하며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협력 범위는 안보·국방정책부터 대테러, 사법공조, 군사협력, 기술협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국내 정치상황에 비판적인 서방과는 달리 민주화는 벨라루스의 환경과 실정에 맞추어 진전되어야 하며 서방측이 벨라루스에 서구적인 기준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유로 한 서방측의 대벨라루스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2018년 한 해만도 10차례의 정상회담, 최고국가위원회(6.19.), 국가연합 각료회의(6.13., 12.13.), 제5차 지역포럼(10.10.) 개최 등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양자 관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우호관계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안별로 불편한 관계가 노정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EU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포석으로 남오세티아 및 압하지아 자치공화국을 정식 정부로 승인하라는 러시아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입장만을 표명할 뿐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에 대한 승인은 하지 않았다.

4. 군사협력

벨라루스는 구소련권의 CIS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밀접한 대외관계, 벨라루스군의 장비 대부분이 러시아제라는 점, 지휘관들간의 인적 유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협력틀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벨라루스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러시아-NATO 무력분쟁시 러시아의 방어기지 또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벨라루스-러시아 연합군의 전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벨라루스-러시아 합동군사훈련은

소련시절 Zapad²²⁾(러시아어로 West 서방을 의미) 합동군사훈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Zapad 훈련의 집중도가 약화되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다가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역내 맹주로서의 입지가 재확립되면서 이듬해 2009년부터 벨라루스-러시아 정기 합동군사훈련으로 부활하여 실시되어 오고 있다.²³⁾

Zapad 2017 훈련은 2017.9.14.-20.간 벨라루스 비렘스크주와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칼리닌 그라드주 일대에서 양국 병력 10,000여 명(벨라루스군 7천, 러시아군 3천여 명), 전투용 탱크를 포함한 장갑차량 370대, 포병 무기시스템 및 다연장 로켓시스템 150기, 항공기 및 헬리콥터 40대 등이 동원되어 실시되었다. Zapad 2017 훈련의 의도를 둘러싸고 서방과 벨라루스(러시아) 측 사이에 이견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미국, 독일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이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의 불확실성, 훈련 종료 후 벨라루스 내 러시아군대의 잔류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등 훈련과정 전반에 의구심을 나타낸 데 대해,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훈련이 테러리스트 또는 분리주의 단체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적 성격이며 각 국 및 국제기구 옹저버와 언론인들에게 훈련 참관을 허용하는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훈련 진행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 하면서 서방측이 이 훈련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Zapad 훈련과는 별개로 ‘Union Shield’라는 명칭의 벨라루스-러시아 합동군사훈련도 실시되고 있다. 2019 Union Shield 훈련은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주에서 실시되었으며 벨라루스군 4,000여명 등 총 12,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했고 항공기 및 헬기 70대, 장갑차 80대, MLRS 50대 등이 동원되었다.²⁴⁾

합동군사훈련 이외에도 양국은 방산업체간 공동 연구·생산, 군사인력의 공동 양성, 대 NATO 정책공조 등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2. Zapad 합동군사훈련은 신형 무기 시험, 바르샤바조약기구 조약국 간 협력 강화, 군사력 과시 등이 목적이었으며 특히 1981년도 훈련 시에는 15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여 독일 침공과 대서방 핵무기 공격에 대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23. Zapad 2009 훈련에는 약 12,500명의 병력(벨라루스군 7천, 러시아군 5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훈련 중 대폴란드 핵 공격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Zapad 2013 훈련은 양국 병력 약 12,500여명과 항공기 50여대, 전차 70여대를 포함한 전투 차량 350대, 함정 10여척이 동원된 가운데 벨라루스 그로드나주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 사상 처음으로 연합 상륙작전 훈련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훈련에는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집단 신속 대응군(약 300여명)도 참가하여 중앙아시아 역내 비상사태에 대한 집단대응훈련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내비추었다.

24. 2011년 Union Shield 훈련에는 약 1만2천여 명(벨라루스 5천, 러시아군 7천여 명), 2015년 훈련에는 8천여 명(벨라루스군 1천 5백, 러시아군 6천5백여 명)의 병력이 참여했다.

5. 경제협력

러시아는 경제 분야에서도 벨라루스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이다. 벨라루스 대외무역의 약 50%가 러시아와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입장에서 벨라루스는 중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4-5위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반면 CIS내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러시아 연간 무역량의 약 5-6%를 차지한다.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벨라루스는 가스의 99%, 원유의 8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벨라루스가 자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이다.²⁵⁾ 러시아에게 벨라루스는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이기도 한데 경제적·기술적인 면에서 벨라루스를 경유하는 수송로가 가장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 수송로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대형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대표적으로 벨라루스가 건설 중인 2기(총 발전용량 2400MW)의 원자력발전소도 러시아의 자금과 기술지원을 받아 시공 중이다.²⁶⁾

벨라루스와 러시아간 경제통합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2010.1.1. 관세동맹을 출범시킨 데 이어 2012.1.1. 공동시장인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결성했고 2015.1.1.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을 출범시켰다.²⁷⁾

그러나 2009년 러시아가 벨라루스산 유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하고, 2010년에는 러시아가 대벨라루스 수출 원유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에도 벨라루스-러시아 가스 통관료 부채, 러시아 NTV의 벨라루스 대통령 비난 프로그램 방영, 칼륨비료 수출 관련 분쟁, 벨라루스 축산물 수출 등의 문제로 인해 벨라루스와

25.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12월 EAEU 최고경제위원회에서 독일에 판매하는 천연가스비가 1,000m³당 250달러이나 벨라루스에 판매하는 가스비는 2018년 129달러, 2019년 127달러라고 언급했다. 2019.1월 현재 벨라루스는 러시아산 석유를 톤당 377달러에 수입하고 있다.

26.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가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건설 중인 2기의 원자력발전소는 시공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원전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리우스에서 약 50km 거리에 있는 벨라루스의 국경도시 그로드나주 오스트로베츠(Ostrovets)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러시아-서방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전진 기지로 이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7. 현재 EAEU 회원국은 5개국(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이며 2018년부터 몰도바가 옵서버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석유세제 개편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벨라루스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현안이 되고 있다.²⁸⁾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경제통합 과정

- 1996.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경제 및 인문분야 통합심화' 조약 서명
- 1998.04.28. 타지키스탄, 상기 통합기구 참여 결정
- 1999.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 구역에 관한 조약 서명
- 2000.10.10. 상기 5개국,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unity, EurAsEC) 설립 조약 체결(관세동맹의 이행 감독기구 창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EurAsEC는 향후 성립되는 관세동맹이나 EAEU의 토대가 됨)
- 2003.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단일경제구역 설립 조약 서명
- 2006.08. EurAsEC 비공식 정상회의,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3국 간 우선 관세동맹 이행 감독기구를 설립기로 결정(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관세동맹 이행기구 참여는 추후 검토)
- 2007.10.06.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3국이 단일 관세지역 창설과 관세동맹 설립에 관한 조약 서명 / 관세동맹위원회 조약 서명
- 2010.01.01.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출범
- 2010.07.05.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단일관세지역 수립(3국은 관세동맹 관세법을 제정하고, 우선 벨라루스-러시아간 모든 관세를 철폐)
- 2011.07.01.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모든 관세 철폐(3국간 통관절차 폐지)
- 2011.10.18. CIS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8개국 총리 서명. 2012.3.20. 러시아 기준, 4.19. 벨라루스 기준)
- 2011.11.18.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조약 서명
- 2012.01.01.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
- 2012.02.02.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출범(관세동맹위원회는 경제위원회에 흡수통합)
- 2013.12. 3국 정상회담,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추진 일정 합의
- 2014.05.29.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합의
- 2015.01.01.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정식 출범

28. 2018년 러시아는 2019-24년 중 시행할 석유제제를 개편하여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세를 영(Zero)으로 하고 자원 채굴세를 인상했다. 이 조치로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석유가격이 상승하여 벨라루스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세계은행은 2019-24년간에만 벨라루스가 약 20억 달러의 수입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 양국 간 갈등이 발생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한 데 대해 러시아는 보상 조건으로 벨라루스-러시아 국가연합 통합 강화를 제안했으며 벨라루스는 통합 강화는 자국을 병합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라시아 경제통합기구간 관계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경제통합기구간 관계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국가간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당사국간 관세면제를 통한 상품·서비스의 자유이동) △관세동맹(당사국간 면세 뿐 아니라 제3국에 대해서 공동의 관세 정책 시행) △공동시장(상품·서비스뿐 아니라 노동력 및 자본 등 생산요소도 자유롭게 이동) △경제동맹(재정·금융정책도 상호 조율) △경제통합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유라시아 경제통합기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도 있다.

1. EurAsEC

- 구소련 국가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포괄적인 경제통합체제

2. 3국 관세동맹

- EurAsEC은 5개 회원국(우즈베키스탄 2008년 탈퇴) 간 경제력 격차, 경제상황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 등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EurAsEC 회원국 중 우선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3국 간 국제적 이행감독기구를 갖춘 관세동맹으로 창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참여는 추후 검토)

3.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 관세동맹을 확대·발전시킨 공동시장 성격의 통합기구
- 단일경제구역 3국(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단일경제구역”보다 관세동맹으로 더 많이 지칭되고 있음.

4.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 EU 수준으로 통합된 경제공동체 결성을 최종 목표로 함.

이외에도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경제포럼 개최, 첨단기술 및 우주분야 협력 등 다양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벨라루스는 벨라루스-러시아 양국간 현격한 경제력 차이, 벨라루스의 절대적인 대러시아 에너지 수급 의존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경도된 대러시아 협력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심화²⁹⁾ 시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탈피하고자 최근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29.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러시아가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벨라루스도 2015-16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으며 2017년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자 벨라루스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인도, 터키, 남미, 중동 등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EU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 물색도 원활하지 않은 반면 러시아 등과의 경제통합은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벨라루스의 현 경제구조상 대러시아 경제 의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3. EU·미국·일본과의 관계

벨라루스는 EU와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여건의 활용,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완화, 서방의 첨단기술 도입과 투자유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독립초기부터 미국 및 EU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2004년 이후 벨라루스의 선거부정 및 야당인사 탄압 등을 이유로 루카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벨라루스 정부 주요 인사, 야당인사 탄압에 관련된 법원·검찰·경찰·국가안보위원회(KGB) 직원,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치자금원 역할을 한 기업인 등에 대해 역내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를 시행해 왔으며³⁰⁾ 이로 인해 벨라루스의 대서방 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벨라루스-서방 관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정 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요청(크림병합 지지 표명)을 수용하지 않고 민스크 프로세스 등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한 서방국가는 벨라루스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더하여 2015.8월 벨라루스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고 곧바로 10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까지 평온하게 마치게 되자 EU는 2016.2월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으며,³¹⁾ 미국도 벨라루스 9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³²⁾

벨라루스와 EU는 정치적 관계와는 별도로 경제·통상의 실리적 관계는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EU는 벨라루스 전체 대외무역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러시아에 이어 제2의 무역파트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벨라루스와 EU간에는 경제, 금융, 무역, 세관, 환경보호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벨라루스와 유럽투자은행(EIB)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0. EU는 2004.9.24. 벨라루스 정부인사 6명에 대해 EU지역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조치를 취했으며 2006년에는 제재 대상을 41명으로 확대했다. 2008년 제재인사 36명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도 했으나 2010년 12월 벨라루스 대선 후에 정부인사 175명, 3개 국영기업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했다. 미국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405호(2006.6.16. 발효)에 따라 루카셴코 대통령 포함 벨라루스 주요인사 10명의 미국 내 재산, 재산권, 금융거래, 금융계좌에 대한 동결 및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매년 재검토 후 연장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벨라루스 주요기업 9개에(Belarusian Oil Trading House, Belneftkhhim, Belneftkhhim USA, Belshina, Grodno Azot, Grodno Khimvolokno, Lakokraska, Naftan, Plotsk Steklovlokn)에 대한 제재를 시행 중이며 역시 매년 연장 여부를 재검토 하고 있다.

31. EU는 루카셴코 대통령 포함 170명 및 기업 3개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으나 벨라루스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탄압용 재화(시위 진압용 장비 등) 금수조치, 1999-2000년 발생한 정치인(2명), 사업가(1명), 기자(1명) 실종 사건에 책임자(정부인사) 4명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는 해제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연장 여부를 재검토 하고 있다.

32. 미국은 2015.10.26. 미국 국민이 벨라루스 9개 기업과 5만불(기존 3만불) 이상 거래시 15일 이내에 미 국무부에 신고하도록 하여 자유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했으나 자산은 지속 동결했다.

하지만, EU의 대벨라루스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고, 벨라루스-EU 기본협정 체결도 지체되고 있어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벨라루스와 미국은 2019.9월 관계 정상화 추진에 합의했다. 벨라루스의 민주화와 인권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였던³³⁾ 양국은 2019.1월 벨라루스가 2008년 이후 지속되어 온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 규모 제한을 해제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는데 2019.8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민스크 방문에 이어 2019.9월 데이비드 헤일 국무부 정무 부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가 공식화되었다.³⁴⁾ 양국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대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대벨라루스 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양국관계의 걸림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³⁵⁾

한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2003년 이래 벨라루스 정부와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스크 사무소를 유지했으나 2010.12.31. 벨라루스 정부가 OSCE 민스크 사무소의 주재 이유가 없다며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폐쇄되었다. 미국과 EU는 벨라루스 정부에 대해 OSCE 사무소의 활동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OSCE 민스크 사무소의 재개 여부는 벨라루스와 서방간 현안 중 하나이다.

벨라루스와 일본 간 관계에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벨라루스와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미국 및 EU의 대벨라루스 정책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 2008년 벨라루스는 미국의 벨라루스 인권상황 비난 및 제재를 이유로 주미 벨라루스 대사를 소환하고 벨라루스 주재 미국 외교관을 35명에서 5명(대사 대리 체제)으로 축소했다.

34. 헤일 부장관은 양국관계 정상화가 벨라루스에게 동서 진영 중 어느 한 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벨라루스의 주권과 독립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35. 헤일 부장관은 벨라루스 민주주의의 진전이 있게 되면 제재 완화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4. 중국과의 관계

벨라루스는 경제 분야의 과도한 대러시아 편중을 개선하고 외국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해 경제 협력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9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으며³⁶⁾ 특히 2005년 중국 방문 시에는 벨라루스-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2013년에는 벨라루스-중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또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중국이 제안한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포럼에 참석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정연설, 기자간담회 등 여러 계기에 중국과의 우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총리, 장관, 기업대표 등 각계 각층의 대중국 협력도 왕성하다.

중국은 유라시아 진출의 관문이 되는 벨라루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10.3월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벨라루스를 방문했으며, 2011.9월에는 우방귀 전인대 의장이 방문했다. 2015.5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벨라루스를 방문하여 양국 간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벨라루스가 ‘일대일로’ 구현을 위해 교통·운송, 인프라·통신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양국은 에너지, 통신, 기계, 화학, 산업 및 사회기반 시설,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길레프 화학섬유 공장 현대화 사업, 합작 펄프공장 건설, 중국 Geely 자동차 합작생산공장 등이 대표적인 협력사업이다. 또한, 2014년 국제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에 맞추어 민스크 소재 베이징 호텔을 완공 및 개장했다.³⁷⁾ 2018년 벨라루스-중국 무역량은 약 33억불을 기록했다.

이처럼 벨라루스와 중국의 협력관계는 경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무엇보다도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은 ‘Great Stone’ 산업단지이다.³⁸⁾ 양국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를 통해 벨라루스는 중국의 차관 등 경제지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중국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36.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5, 1997, 2001, 2005, 2008, 2010, 2013, 2017, 2019년에 중국을 방문했다.

37. 베이징호텔은 2011.9월 착공되었는데 당시 민스크를 방문 중이던 우방귀 전인대 의장이 기공식에 참석했다.

38. Great Stone 산업단지는 벨라루스 최대 해외직접투자(FDI) 사업(총면적 91.5km²)이다. 2011.9.18. 벨라루스-중국 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12.1.31.부터 조성이 시작되어(2030년 완공 예정) 2019년 10월 현재 5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벨라루스 및 중국 이외 제3국 기업도 입주 가능하다.

양국은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이 활발하다. 벨라루스 내 대학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학생의 10.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³⁹⁾

.....
39. 1위는 투르크메니스탄(43.5%), 3위는 러시아(8.8%)이다.

5. 제3세계·기타 관계

벨라루스는 과도한 대러시아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서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 이외에도 동남아, 중남미, 터키, 인도, 중동 및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5.9월 루카셴코 대통령은 UN 총회 계기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17년에는 이집트를 방문했다. 2019.6월에는 이집트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답방함으로써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인했다. 벨라루스는 짐바브웨, 기니, 앙골라, 모잠비크 등과도 고위급 교류를 추진했으며, 2015.2월에는 불안정한 시리아 정세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또한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등 제3세계 국가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이스라엘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기업의 투자유치와 우수한 농업·수자원 관리기술 도입 등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벨라루스는 19-20세기 거대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던 곳⁴⁰⁾으로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벨라루스 출신이며,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 메나헴 베긴 전 총리, 이츠하크 샤미르 전 총리 등 상당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벨라루스 태생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인들은 벨라루스에 대해 비교적 친숙한 편인데 벨라루스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문화적·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정치·경제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40. 유대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았던 리투아니아-폴란드 연방이 해체되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병합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유대인들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현재의 벨라루스 지역에 거주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6. 국방정책

벨라루스는 헌법상 목표인 ‘중립화, 비핵국가 지향, 자주국방’의 기초 하에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과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군사독트린(Military Doctrine of the Republic of Belarus)을 운영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2016년 △세계 군사정치상황 평가 △군사정치상황 전개에 따른 중기적 전망 △군사시설 건설 경험 △군사 안전 보장 등을 기반으로 한 신군사독트린을 발표했다. 독트린에는 ‘벨라루스는 정책 이행 도구로서 행해지는 모든 군사 갈등을 반대하고, 세계 분쟁의 비군사적 해결 원칙을 지지한다. 또한 벨라루스는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내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적 예방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벨라루스군 총병력은 2018년 기준 약 46,500명이며 육군 약 29,500명(하천 경비대 포함), 공군 11,000여명(방공군 포함), 특수부대 약 6,00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¹⁾ 내륙국인 관계로 해군은 없다.

군사편제는 군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총참모장(Chief of General Staff)을 지휘하여 군정권⁴²⁾과 군령권⁴³⁾을 행사하는 통합군제이다.

벨라루스군은 탱크 1,317대(신형 T-72B3 포함), 장갑차 1,942대, 전투기 63대, 전투 헬리콥터 15대를 보유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국방비는 평균적으로 전체 GDP의 1.4% 수준이며 2017년에는 1.19%였다. 벨라루스군은 2013년 Mig-29의 개량형인 Mig-29BM 12대를 배치했으며, 2020년까지 노후화된 Mig-29기 17대를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SU-30)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고가의 유지비 문제로 인해 SU-27 21대가 전력에서 제외되었었는데, 기체 재정비 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복귀하고 있다.

남자들은 20세 이후 의무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6개월 간 복무해야 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

41. 출처: wikipedia
 42. 군정권 : 군대의 편성 및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으로 인사, 군수 등에 대한 지휘 통제권한
 43. 군령권 : 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명령권한

벨라루스의 비핵화

소련 당시 벨라루스는 소련의 서부국경을 방어하는 최전선이자 주요 연방공화국으로서 ▲전략핵 미사일인 SS-25(토폴) 미사일 시스템 81기(이동식 발사 가능)와 ▲중·단거리 미사일 584기 ▲전술 핵탄두 약 1,000발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7월 벨라루스가 독립적인 주권을 선언하고 1991.12월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벨라루스는 핵보유국으로 주권국가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벨라루스의 핵보유는 기술적으로 핵장비 확산에 따른 방호·관리 소홀의 문제와 함께 법적으로 핵무기 보유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소련의 승계국)에게만 허용된 NPT 체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벨라루스 보유 핵무기의 처리문제가 제기되었다. 동일한 문제가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에도 제기되었음은 물론이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비핵화지지 여론, 독자적인 핵 억제력보다 동맹과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안보추구, 핵강대국과의 충돌 우려, 핵보유에 따른 국제고립 등을 우려하여 핵무기에 미련을 보이지 않았으며 1996.11월 러시아에 모든 핵무기를 양도했다.



IV. 경제 동향

1. 거시경제지표
2. 최근 경제상황 및 경제잠재력
3.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1. 거시경제지표

가.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동 추이 (2014~2018)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1.72	-3.83	-2.53	2.42	3.0
명목GDP (십억\$)	78.74	56.33	47.7	54.44	56.93
1인당 명목 GDP (\$)*	8,319	5,949	5,025	5,728	6,299
1인당 GDP (PPP, \$)	18,951	18,395	18,094	18,871	20,175
정부부채 (% of GDP)	38.79	53.01	53.48	53.44	55.92
물가상승률 (%)	18.11	13.52	11.83	6.03	5.52
실업률 (%)	0.49	0.91	1.02	0.77	-
수출액 (백만\$)	36,126	26,660	23,537	29,240	33,726
수입액 (백만\$)	40,613	30,291	27,609	34,234	38,408
무역수지 (백만\$)	-4,487	-3,631	-4,072	-4,994	-4,682
외환 보유고 (백만\$)	3,491	2,808	3,276	5,449	5,296
이자율 (%)	20	25	18	11	10
환율 (자국통화)	1.02	1.59	1.99	1.93	2.04

<자료출처 : IMF>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에 의하면 2019년 벨라루스 예상 경제 성장률은 1.8%이다. 2018년 벨라루스의 평균 임금은 470 달러이며(벨라루스 통계청), 2019.8.1. 기준 벨라루스의 대외부채는 165억 달러, 국가채무는 427억 루블, 국내 부채는 92억 루블이다(벨라루스 재무부).

나. 무역, 외국인투자 및 국제수지

(1) 상품무역

2018년 벨라루스의 무역액은 수출 333억달러, 수입 382억달러, 총 7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영국, 독일, 폴란드이며 10대 무역상대국별 무역액은 아래와 같다.

【2018년 벨라루스 10대 무역상대국 및 무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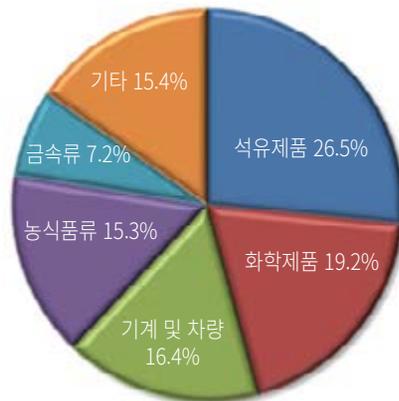
(단위: 달러)

국가	수출	수입	총 무역액	비율(%)
러시아	128억4,190만	226억1,170만	354억5,360만	49.9
우크라이나	40억6,320만	14억150만	54억7,820만	7.6
중국	5억2,590만	31억5,170만	36억7,760만	5.1
영국	30억7,240만	3억1,300만	33억8,540만	4.7
독일	14억8,280만	18억4,520만	33억2,800만	4.7
폴란드	13억4,840만	12억350만	25억5,190만	3.6
네덜란드	14억2,740만	3억2,110만	17억4,850만	2.4
리투아니아	11억5,750만	3억5,600만	15억1,350만	2.1
터키	1억8,510만	7억9,700만	9억8,210만	1.4
이탈리아	1억2,660만	7억8,500만	9억1,160만	1.3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및 관세위원회>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으로 중화학공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⁴⁴⁾

[2018년 벨라루스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기계 및 차량, 화학제품, 농식품류, 금속류 등으로 에너지와 원자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4. 벨라루스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belstat.gov.by>)

[2018년 벨라루스 주요 수입품목]



(2) 서비스무역⁴⁵⁾

2018년 벨라루스의 서비스 무역액은 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억 5,020만 달러(16.9%)가 증가했다. 서비스 수출액은 41억 달러, 수입액은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6.7%, 17.1%가 증가했다.

(3) 외국인 투자

벨라루스는 법적 안정성 부족,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 관행 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나, 벨라루스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2010년 경제부 산하에 외국인 투자와 민영화업무를 전담하는 국가투자 민영화청(National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Agency)을 설치하고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설·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벨라루스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 189억 달러까지 성장했으나, 2015년부터 벨라루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해외투자유입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1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
45. 벨라루스 외교부

[벨라루스 해외투자유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투자유입 소계	9,085.50	18,878.60	14,329.80	14,974.30	15,084.40
직접투자(FDI)	5,569.40	13,248.00	10,358.40	11,083.40	10,168.90
해외간접투자 : 외국시장에 대한 분산투자	1.8	2.3	23.4	12.2	10.6
기타	3,514.20	5,628.30	3,948.00	3,878.70	4,904.9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상반기)
투자유입 소계	11,344.20	8,559.80	9,728.50	10,842.00	5,063.90
직접투자(FDI)	7,241.40	6,928.60	7,634.20	8,537.10	3,940.20
포트폴리오	5.1	2.8	8.4	3.9	4.9
기타	4,097.70	1,628.50	2,085.90	2,301.00	1,118.80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산업분야별 해외투자유입 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도소매업(유통업)과 제조업, 물류운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를 넘는데, 이는 현지 소비시장을 겨냥하여 유통 및 물류업에 주로 투자하거나 기존 제조업 재무적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상반기 벨라루스 산업분야별 해외투자유입 구조]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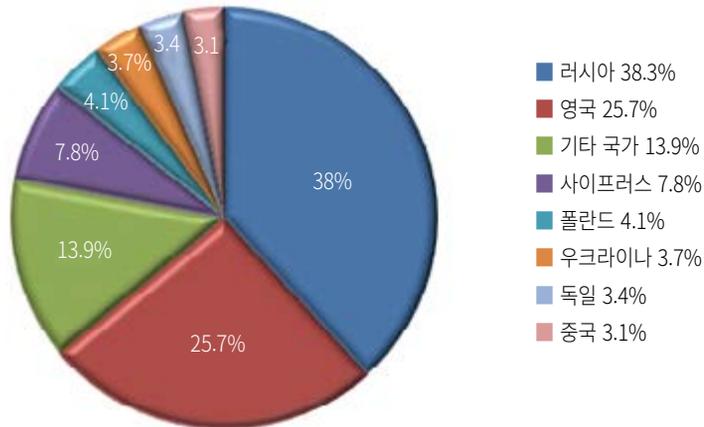
구분	투자유치 산업분야	투자유치 금액	비중
순위	전체산업	5,063,911.90	100
1	도소매업	1,643,239.70	32.5
2	제조업	1,544,812.00	30.5
3	물류운수업	1,041,607.10	20.6
4	정보통신업	325,148.00	6.4
5	금융보험업	148,742.60	2.9
6	부동산업	110,263.60	2.2
7	건설업	105,305.00	2.1
8	과학기술	60,218.90	1.2
9	농림수산업	23,156.60	0.5

10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22,531.00	0.4
11	공공행정서비스	16,193.30	0.3
12	숙박 및 요식업	14,115.00	0.3
13	보건복지	6,675.90	0.1
14	기타 서비스업	1,257.00	0
15	교육	646.2	0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2018년말 기준 벨라루스에는 8,212개의 외국자본이 투자된 기업이 있으며, 총 누적 투자액 기준 주요 투자국을 보면 러시아(30%), 사이프러스(22%), 영국(5.8%), 중국(5.1%) 순서이다.

[2018년 벨라루스 해외투자 주요국별 점유율]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2. 최근 경제상황 및 경제잠재력

1. 최근 경제상황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 제조업 중심지이자 동유럽 굴지의 공업지대였으며, 기초 과학 중심지로서 우수 인력을 다수 배출하던 곳이었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 국가들이 민영화 및 시장경제 지향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벨라루스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 (전체 기업의 약 75~80%)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구소련 시절의 경제정책 기초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의 생산 시설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벨라루스의 경제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반면, 구소련 시절의 비효율(관료주의 및 보수적인 근로 성향,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 또한 잔존하여 시장경제 전환 및 경제발전에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위에서 일부 시장개혁과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등에 힘입어 한때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2011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폭락(100달러 당 연초 30루블에서 연말 83루블 정도로 하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2012년에 벨라루스 루블화의 화폐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증대,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외화 유입,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의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했으나, 기술 발전이나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경제 회복이었으며, 2013년 들어 GDP 성장세 둔화, 수출·수입 등 무역량 감소 및 국제수지 악화, 공공부채 및 상품재고량 증가, 루블화의 지속적인 약세 등 경기침체 동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되자 벨라루스도 2015-16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급 하강세를 보였다. 2017년부터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8년 러시아의 석유세제 개편이 벨라루스에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벨라루스로서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2.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EU 경제권을 연결하는 철로 또는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EAEU 출범으로 인구 1억 7천만의 거대 시장을 구성하는 일원이 되었다. 또한 벨라루스는 안정적인 국내정세, 비교적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 낮은 유가,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기타 CIS 지역과 EU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벨라루스와 EU의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벨라루스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벨라루스는 2014년 63위에서 2019년 37위(75.77점)로 상승하여 투자환경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벨라루스 Doing Business Index 추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위	57	44	37	38	37
점수	68.26	72.33	74.13	75.06	75.77

<자료출처 : The World Bank>

[2019년 벨라루스 Doing Business Index 분야별 순위]

구분	순위	점수
전체분야	37	75.77
법인설립	57	44
건설허가	46	72.33
전기공급	20	90.24
부동산등록	5	92.19
신용대출	85	55
소수투자자보호	51	63.33
세금납부	99	70.68
수출입통관	25	96.21
계약이행	29	69.44
파산해결	72	52.58

<자료출처 : The World Bank>

46. 러시아 31위(77.37), 카자흐스탄 28위(77.89), 아제르바이잔 25위(78.64), 우크라이나 71위(68.25)이며, 우리나라는 5위(84.14)이다.

아울러, 유엔이 발표하는 2017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벨라루스는 5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CIS권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벨라루스의 인적자원이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⁴⁷⁾ 하겠다.

EU와 미국의 대벨라루스 제재로 인해 제3국 기업이 벨라루스와 무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EU나 미국에 소재한 벨라루스 제재 대상자 및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관련 인사의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인 또는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국 기업은 벨라루스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⁴⁸⁾

3. IT 기업 투자유치

벨라루스는 역내 IT 강국으로서 IT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을 시행중이다.⁴⁹⁾ 이 법령을 통해 벨라루스 대표 IT 산업단지인 High-Tech Park(HTP)⁵⁰⁾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이 법령은 △HTP 입주기업의 가상화폐 거래 전면 허용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획득한 소득세 면제 △HTP 입주기업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 운영 허용 △HTP 입주기업을 통한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허용 등 블록체인 기술기반 사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벨라루스는 가상화폐 거래의 복잡성과 투기 위험성을 감안하여 동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HTP 입주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입주심사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실질적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47. 벨라루스 0.808점(53위), 러시아 0.816점(49위), 카자흐스탄 0.800(58위), 우크라이나 0.751점(88위), 우즈베키스탄 0.710점(105위)이며, 한국은 0.903점(22위)이다.
 48. 다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량파괴무기 확산이나 테러지원 우려가 있는 기업과의 거래는 유의해야 하는데 벨라루스와의 거래시에도 마찬가지다.
 49. 디지털 경제개발 법령은 2018.3.28. 발효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http://www.park.by/topic-faq> 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2005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산업단지로 벨라루스 IT 산업의 60%를 차지한다. 2019년 현재 67개국 505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벨라루스는 1993.9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 가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93.10월 벨라루스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1997.6월에는 제1차 가입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WTO 가입 추진 노력은 2005년 제7차 가입작업반 회의 개최 이후 한동안 지체된다. 이는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목록을 마련하지 못했고, 개별국가가 아닌공동관세 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WTO 협정 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 가입협상을 개시했으나 WTO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세 나라가 개별적으로 가입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2012.8.26. 세 나라 중 러시아가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벨라루스의 WTO 가입은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3국이 2011년 체결한 ‘관세동맹의 기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관세동맹 회원국 중 한 나라가 WTO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WTO 협정(마라케쉬협정)은 법적으로 관세동맹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여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있어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임에도 WTO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반면,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장벽 해소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벨라루스는 현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WTO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⁵¹⁾

우리나라는 2007.10월 벨라루스와 최초로 양자협의를 개시한 이후 2017.1월 제6차 양자 협상을 끝으로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위한 한-벨 양자협상 완료를 선언했으며, 2017.4월 양측은 민스크에서 양자협상 완료 합의문에 서명했다.

51. 벨라루스는 2020.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각료회의(MC-12) 계기에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9.7월 현재 우리나라, 인도, 아르헨티나, 대만, 일본, 코스타리카, 호주, 캐나다, 브라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터키, 스위스,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 벨라루스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V.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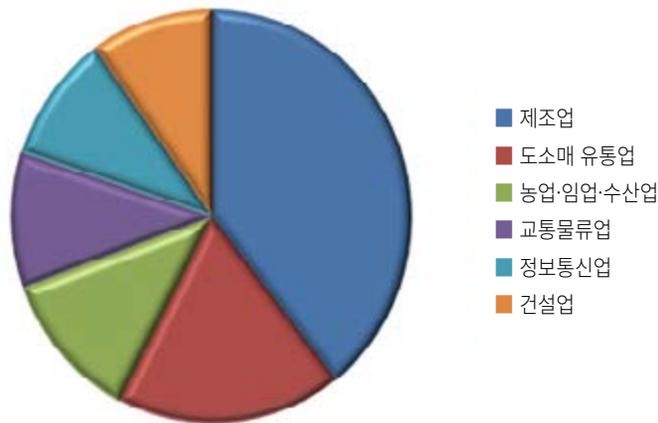
1. 벨라루스 산업 개요
2. 정부 산업정책 기조
 3. 산업 구조
 4. 주요 산업

1. 벨라루스 산업 개요

벨라루스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루카셴코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면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혼합한 정부 주도의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을 이야기할 때 서방에서는 벨라루스를 ‘유럽 속의 작은 중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공장 집합체’라고 한다면, 벨라루스는 3국 관세동맹의 ‘조립 공장 집합체’라고 비교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구소련 시절부터 벨라루스가 역내 제조업 집중 국가로 육성되었으며, 지금도 GDP에서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별 GDP 구성]



2018년 기준 벨라루스 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 21.5%, 도소매 유통업 10%, 농업·임업·수산업 6.4%, 교통물류업 5.8%, 정보통신업 5.5%, 건설업 5.4% 등이다.⁵²⁾ 제조업에서는 식품업이 25.8%, 광물 17.6%, 화학제품 제조업이 10.8%, 고무·플라스틱 등 비철제품이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벨라루스 산업의 핵심은 석유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이다. 2018.12월 기준 국내 전체 산업분야에 13,055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약 10%인 1,300개 기업이 벨라루스 총 산업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52. 벨라루스 통계청

2013년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벨라루스 경제가 저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생산량도 4.8% 감소했으며 2016년에도 다시 한 번 서방의 러시아 제재 여파로 88.9% 급감했다. 2017년 이후부터 연간 1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량 연간 변동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생산량 (백만루블)	605,634	673,850	739,590	81,794.9	94,306	110,363.9
전년대비 (%)	-4.8	11.2	9.7	-88.9	15.2	17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정부는 10대 핵심 산업생산품을 선정하여 수출 위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이 적지 않다.

[10대 핵심 산업생산품]

순서	품 목
1	광산용 덤프트럭
2	트랙터 및 농기계
3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스 및 전기레인지
4	가구
5	비료
6	연료
7	아마섬유
8	화학섬유 및 원사
9	육가공품
10	유제품

<자료출처 : 벨라루스 대통령실>

벨라루스 정부는 농업이나 공업보다는 서비스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면서부터 러시아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원유 정제업,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정부 산업정책 기조

벨라루스 정부는 1998.5월 ‘산업발전프로그램 1998-2015’를 채택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생산의 양적 확장과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 벨라루스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⁵³⁾ 2000년대 후반까지 제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3국 관세동맹 출범과 함께 벨라루스 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 추세를 이어갔다.

세계금융 위기와 함께 벨라루스도 2009년 경제위기와 2011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 러시아(위기대응기금)와 서방(IMF 차관)의 금융 원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 과정에서 벨라루스는 산업부문 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을 통한 다소 소극적인 국내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나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낮은 상품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이 국가 산업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벨라루스 정부는 2012.7월 산업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신산업정책 ‘산업발전프로그램 2020’을 채택했다.

[벨라루스 ‘산업발전프로그램 2020’ 주요 내용⁵⁴⁾]

구분	내용
목표	경쟁력 있는 혁신산업 발전, 노동생산성 제고, 수출잠재력 실현
우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집약 첨단제품(바이오·나노기술, 초소형전자공학, 정제화학제품, ICT, 레이저 광학기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유전공학, 신소재 등) 생산기반 조성 ○ 전통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잠재력 제고 ○ 자원 및 에너지집약도 감소, 원재료 가공기술 심화 ○ R&D 활성화 및 투자 촉진 ○ 친환경 기술 도입, 대체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등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
추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15)첨단산업 육성(정밀엔지니어링, 초소형전자공학, ICT, 의료기기, LED 기술, 바이오 기술 발전 기반 조성, 기존 미생물학 및 제약 분야 생산력 제고), 심층가공 기업 육성(목재, 농산품, 철강, 실비나이트등 원재료 가공) ○ (2016~20)전통분야(기계제작, 화학, 비금속 광물 생산 등) 및 지식집약 첨단 산업 분야의 균형 발전, 기술집약 에너지 및 자원 절약 기술 도입, 산업 주요 분야의 혁신활동 활성화 등

53. 구소련 시기 형성된 제조업 시설과 함께 이 프로그램 덕분에 벨라루스는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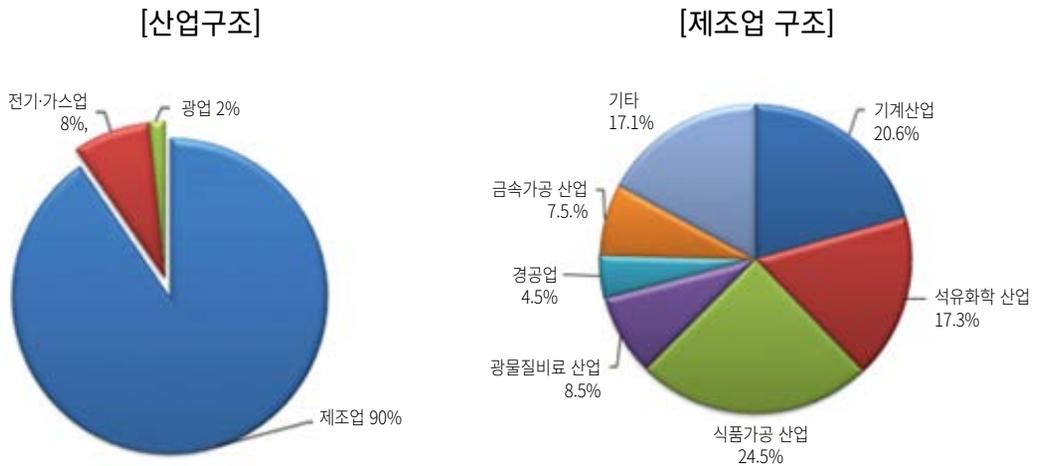
54. pravo.by/document/?guid=3961&p0=C21200622(벨라루스 법령사이트)

<p>산업범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수출지향 산업: 농기계 등 기계 생산, 야금제품 생산, 고무 및 플라스틱 생산, 직물 및 의류 생산, 식품생산 등 ○ 연료·에너지 산업: 고효율 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생산성 제고, 에너지 구조 다변화 추진 (원자력, 대체 에너지 개발) ○ 첨단 산업: 나노, 바이오기술, 광학, 전자 기술 기반 산업 발전 → 지식기반 상품 생산 확대, 전통 산업 부문에 첨단기술 도입
<p>산업 범주별 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산업 현대화: 기술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설비 현대화 추진(자원집약도 감소, 상품 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선), 국제 제조업(기계, 비금속 생산) 시장경쟁력 제고,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 연료·에너지 산업 고도화: 에너지구조 다변화, 에너지효율 기술 도입,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 ○ 첨단산업: 지식, 기술기반 첨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과학기술 잠재력 극대화(전자기술, 나노 포토닉스, 최신 전자장비, 나노소재 등 개발 및 생산 역량 제고)
<p>산업발전 지원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 ○ 테크노파크 등 혁신인프라 개발 ○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친환경 산업생산 확대

이후에도 벨라루스 정부는 2016.10월 지속적인 고용과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 프로그램 2016~2020’을 채택한 데 이어 2016.12월 혁신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 수출역량 제고를 목표로 한 ‘상호경제발전 프로그램 2016~2020’을 도입하여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산업 구조

벨라루스 산업은 제조업 집중(제조업 88.6%, 전기·가스업 8.5%, 광업 1.3%) 현상이 뚜렷하며, 제조업 중에서는 식료품(27.9%), 석유정제제품(15.9%), 화학제품(10.1%)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4인 약 120만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료출처 : 2018, 벨라루스 통계청>

지역별 주요기업 분포도

고멜 주	·State Production Association Belorusneft ·Gomselmash ·Mozyr Oil Refinery ·Belorusskie oboi	비렙스크 주	·Naftan ·Polotsk-Steklovolokno ·Orsha linen mill ·Vityas
브레스트 주	·Polymer ·Pinskdiv ·Amkodor-Pinsk ·Brest Carpets ·Beryozastroymaterialy ·Barhim	그로드나 주	·Grodno Azot ·Lakokraska ·Lideslmash ·Bellakt
		민스크 주	·BELAZ ·Belaruskali
모길료프 주	·Mogilevkhimvolokno ·Belshina ·Mogilev Metallurgical Works ·Mogotex ·Mogilevliftmash	민스크시	·Minsk Tractor Works ·Minsk Wheel Tractor Plant ·Belkommunmash ·Atlant ·MAZ ·Amkodor ·Motorcycle Company Minsk-Moto ·Keremin

4. 주요 산업

1. 석유화학산업 개요

벨라루스 석유화학산업의 역사는 소련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소련 해체 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인 대규모 정유공장을 승계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총 5,000만 톤의 정제량을 보유한 6개의 정유공장을, 벨라루스는 연간 총 2,400만 톤 규모로 2개의 정유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 석유화학산업의 운명은 1990년대 초 정부의 정유산업 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졌다.⁵⁵⁾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1997년 콘체른 벨네프티힘을 설립하며 철저히 민간 투자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의 발전 계획을 추진했다. 벨라루스 정부는 1차 원료인 러시아산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모지르 정유공장”(Mozyr Oil Refinery) 지분 42.56%를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과 로스네프찌(Rosneft)에 판매했으며, 정부주도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시설투자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을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석유화학산업은 세부적으로 ①광물질화학산업 ②석유제품 가공산업 ③석유정제산업으로 분류되며 국내 75개의 관련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벨라루스 전체 산업에서 석유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인데 그 중 정유 및 석유제품 가공산업이 16%, 광물질화학산업이 9%를 차지한다.

석유화학 가공품과 정제유 수출로 획득하는 외화수입은 벨라루스가 상품수출로 벌어들인 총 외화수입의 1/3을 점유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벨라루스의 석유산업은 1차 원료인 석유의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정책기조와 벨라루스-러시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5. 우크라이나 정부는 독립초기 석유화학 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으나, 이는 대규모 시설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상 생산 시설 현대화를 더디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2005년 이후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을 줄이면서 석유화학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가. 광물·화학산업

벨라루스 광물·화학산업은 벨라루스칼리(Belaruskali)에 의한 칼리비료 해외 수출이 주도하고 있다.

[미네랄 및 화학비료 생산 동향]

(단위: 천톤)

2014	2015	2016	2017	2018
7,368	7,508	7,198	8,157	8,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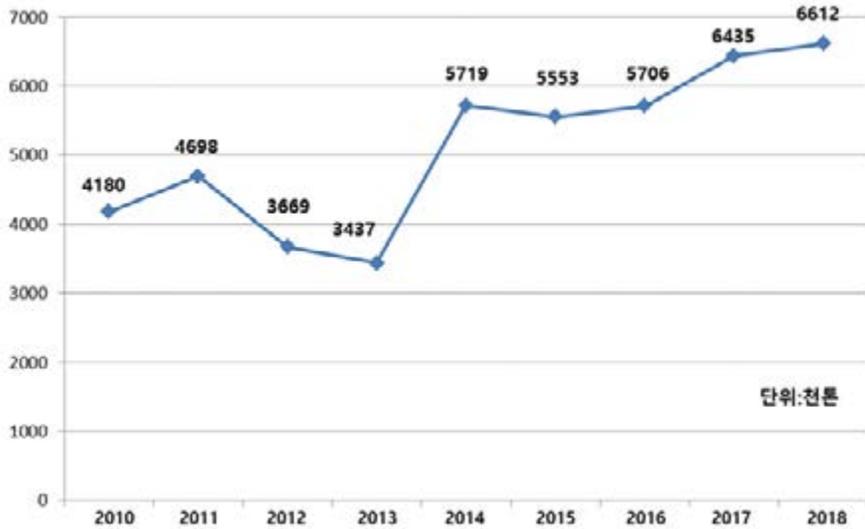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칼리는 전세계 칼리비료 생산량의 약 15-20%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칼리비료 회사로서 생산량의 90%를 수출한다. 벨라루스칼리는 2005년 세계최대의 칼리비료 생산업체인 러시아 우랄칼리와 카르텔을 구성했으며, 이 카르텔은 캐나다의 칼리비료 합작 기업인 Canpotex와 세계시장의 양대산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2013.8월 러시아 우랄칼리는 벨라루스칼리의 공동판매 협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세계시장에서의 공동판매 카르텔 파기를 선언했고, 세계시장 칼리비료 가격이 톤당 630달러(2013.11월 기준)까지 급락(15%)하여 수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함으로써 벨라루스 경제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2014년 중반 이후부터 국제 칼리비료 시장이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벨라루스 칼리의 수출량은 기존 수준을 회복하고 수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칼리비료 수출 동향]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나. 석유제품 가공 산업

벨라루스 석유제품 가공 산업은 국영 석유화학 콘체른⁵⁶⁾ 벨네프티힘(Belneftekhim)이 주도하고 있다.

1997년 정부주도로 설립된 콘체른 벨네프티힘은 벨라루스 석유화학 가공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분야 60여개의 제휴 기업을 통제함과 아울러 석유채굴, 상품 운송, 신제품 연구 개발, 수출시장 발굴 등의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콘체른 제휴 기업들은 약 500종류 이상의 석유화학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생산량이 벨라루스 전체 산업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한다.

석유제품 가공산업에는 벨라루스 산업분야 전체 종사자의 9.6%가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품의 7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56.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주식과 같은 자본을 공유하거나 인적자원 파견,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형태

[큰체른 제휴 주요 기업 및 주요 생산품]

구 분	주요 생산품	관련 제휴 주요 기업
석유화학	▶ 휘발유(유로-4,5인증) ▶ 디젤유(동계용) ▶ 제트엔진 항공기연료(Jet A-1, PT)	JSC "Naftan"
		JSC "Mozyr Oil Refinery"
		SPA "Belorusneft"
		JSC "Mineral Wax Plant"
타이어	▶ 자가용·덤프트럭용 타이어	JSC "Belshina" JSC "Shinoremont"
화학섬유 · 합성수지	▶ 폴리에틸렌,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	JSC "Grodno Khimvolokno"
		JSC "Svetlogorsk Khimvolokno"
		JSC "Mogilev Viscose Fiber Plant"
		JSC "Polimir Plant"
유리섬유	▶ 폴리아미드 섬유, 코드직물, 특수사	JSC "Polotsk-Steklovolokno"
바이오연료	▶ 니스, 폴리에틸렌관(PE관)	Lakokraska
		JSC "Gomeltransoil Druzhba"
광물질 비료	▶ 비료(칼륨, 질소, 인)	JSC "Belaruskali"
		JSC "Gomel Chemical Plant"
		JSC "Grodno Azot"

<자료출처 : 벨라루스 산업부>

[석유제품 수출입 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량(천톤)	420.5	1,652.7	1,718.7	3,421.9	2,880.9
수출량(백만톤)	13.8	16.9	13.0	12.3	11.9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석유화학, 합성수지, 화학섬유 및 유리섬유 제품 생산 이외에 벨라루스 석유화학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타이어 생산부문이다.

[타이어 생산 / 수출 동향]

(단위 : 천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량	5,012	3,910	3,611	3,710	3,932
수출량	3,816	3,351	3,928	4,497	5,554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콘체른 제휴 기업인 벨쉬나(Belshina)는 연간 430만 개의 타이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70여종의 승용차 및 화물차 타이어를 생산하여 전 세계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다. 석유정제 산업

벨라루스는 현재 연간 약 1,800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석유를 매년 정부간 협의를 통해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정제작업을 거쳐 1/3은 국내 소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세 동맹 역외(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네덜란드 등)로 재수출 하고 있다.

[러시아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량 변동]

구분	2017				2018			
	수량	가격 (천달러)	전년대비 수량(%)	전년대비 가격(%)	수량	가격 (천달러)	전년대비 수량(%)	전년대비 가격(%)
석유	18.1 (백만톤)	5,296,226	99.6	133.9	18.2 (백만톤)	6,809,271	101.1	128.6
석유제품	3,326.6 (천톤)	1,081,877	197.8	205.2	2,743.0 (천톤)	1,085,357	82.5	100.3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원유 수출입 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백만톤)	22.5	22.9	18.1	18.1	18.2
수출(천톤)	1,617.4	1,615.4	1,616.6	1,620.9	1,639.7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내 석유 정제산업은 모지르(Mozyr)와 나프탄(Naftan) 정유공장이 전체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정유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석유 정제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제 1차 정제율(Crude Distillation Unit)을 기존 70.5%에서 92% 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유공장 현황]

구 분	모지르(Mozyr)	나프탄(Naftan)
설 립 연 도	1975	1963
정 제 용 량 (연간)	1,200만 톤	1,200만 톤
생 산 기 준	EURO-V	EURO-V
현대화 사업 종료 후 기대 정제율(1차)	92% / EURO-VI	92% / EURO-VI

나프탄 정유회사는 연간 1,200만 톤의 석유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75개 이상의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CIS 최대 규모이고 유럽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생산을 위한 1차 원료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전량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모지르 정유 공장은 벨라루스 국내에서 채굴되는 석유를 주로 정제하고 있다.

2. 기계산업 개요

벨라루스 기계산업은 석유화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생산량 증대와 기술개발을 이룩했다. 그러나 국영기업 위주의 시장구조 때문에 경쟁 체제가 확립되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2018년 기준 제조업 분야에서 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기계·장비 제조 7.6%, 차량·장비 제조 3.5%, 전자장비 제조 2.8% 순이다.

기계산업 전체 생산품 중 70%가 국외로 수출되며, 수출의 70%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한다.

벨라루스 기계산업을 대표하는 분야는 ①차량 및 운송장비 산업 ②농기계 산업 ③가전제품 및 광학기계 산업이다.

가. 차량 및 운송장비 산업

벨라루스의 차량 및 운송장비 주요 생산품은 화물차량, 덤프트럭, 크레인, 버스, 전기버스(전기 전차), 차량엔진 등을 꼽을 수 있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협력하여 부품을 조달하여 벨라루스에서 조립·생산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주요 품목 생산 동향]

(단위 : 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트럭(광산용 덤프트럭 포함)	19,300	12,700	6,400	6,600	9,500	11,800
버스	2,341	1,672	900	1,316	1,266	1,615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차량 및 운송장비 주요 기업 현황]

구 분	주요 생산품	비 고
민스크 자동차 공장 (MAZ, Minsk Automobile Plant)	각종 운송 트럭, 대형 버스, 트레일러, 캐러밴 등	▶ 약 500여종의 다양한 형태와 옵션을 갖춘 모델을 생산
벨라루스 자동차 공장 (BELAZ, Belarusian Automobile Plant)	초대형 덤프트럭, 불도저 등	▶ 30-450톤급 대형 광산용 덤프트럭 생산 ▶ 생산품의 70% 러시아 수출 ▶ 세계시장 30% 점유
민스크 엔진 공장 (Minsk Motor Plant)	트랙터용 엔진 등	4기통, 6기통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차량 생산공장(BelAZ)

벨라루스 차량 생산공장(BelAZ)은 1961년 25톤 덤프트럭 생산을 시작으로 1986년 연간 6,000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중장비 생산 공장으로 발전했다.

2018년 현재 광산용 덤프트럭 세계시장의 30%를 점유하며, 품질 및 최대적재량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BelAZ는 2013.10월 러시아 석탄광산 수출용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450톤 급의 초대형 덤프트럭 (BelAZ-75710)을 생산했다. 이 덤프트럭으로 2014.1월 503톤을 적재하고 이동하는 데 성공하여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자료출처 : BelAZ 홈페이지>

나. 농기계 생산

트랙터를 포함한 벨라루스산 주요 농기계는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로 수출되고 있다.

주요 생산 기업으로는 민스크 트랙터 공장 MTZ(Minsk Tractor Plant)와 고클셀마쉬(Gomselmash)를 들 수 있으며, MTZ는 최대 280마력의 다목적 트랙터를 생산하고 소형트랙터, 경운기, 로더 등 80여종의 다양한 모델의 농기계를 생산하여 80%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트랙터 타이어 생산기업으로도 유명한 MTZ는 세계 10대 농기계 및 부속품 생산기업에 속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그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트랙터 생산 동향]

(단위 : 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트랙터	52,200	34,300	34,400	38,200	40,800

<자료출처 : 벨라루스 통계청>

대형 새시 및 타이어 생산 기업

벨라루스의 대형 덤프트럭 및 농기계 생산시설 발달은 대형 차량용 타이어 및 새시 생산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3년 말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RT-Auto에 75%의 지분을 매각한 민스크 트랙터 휠 공장MZKT(Minsk Wheel Tractor Plant)은 농기계용 새시 생산 이외에도 SA-10 그럼블(Grumble), S-125 지대공 미사일, RT-2UTTKh 《토폴-M》 대륙간 탄도미사일 새시 및 휠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품의 90% 이상을 러시아, 중국, 터키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다. 가전·전자제품 및 광학기계 생산

벨라루스 가전·전자제품 및 광학기계 분야에는 80여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산업은 냉장고·세탁기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영기업 아틀란트(Atlant)가 선도하고 있다. 아틀란트의 생산품 80%는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기술력에 힘입어 러시아 가전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벨라루스에 설치된 대형 방위산업 생산 시설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벨라루스 정부는 기존 군수 생산 라인을 반도체 및 TV 생산을 위한 전자제품 생산 라인으로 변경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TV·오디오 생산기업 호리존트(Horizont)와 반도체 생산기업 인터그랄(Intergral)이 있다.

광학기계 분야에서도 군수제품 시설을 진공 코팅선반, 레이저 의료장비 및 가스 계측기 생산 시설로 변경했으며, 수출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는 레이저 의료 장비 및 야간 관측기 등을 생산하는 벨로모(BELOMO, Belarus Optical Mechanical Enterprise)와 광학렌즈 및 광섬유 생산기업 옵틱(Plant Optic)이 있다.



VI. 한 · 벨라루스 관계

1. 정무 관계
2. 경제·통상 협력 관계
3. ICT 협력 관계
4. 고려인·인적 교류 현황
5. 교육분야 협력
6.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7. 북한과의 관계

1. 정무관계

가. 외교관계

- 1991.12.30. 한국, 벨라루스 국가 승인
- 1992.2.10. 외교관계 수립
- 2007.12. 주벨라루스 상주대사관 개설

연도	한국	벨라루스
1992	홍순영 겸임대사(12월)	
1993	김석규 겸임대사(11월)	
1996	이정빈 겸임대사(8월)	
1997		말레비치 대사대리(12월)
1998	이인호 겸임대사(10월)	
1999		세메쉬코 초대 대사(12월)
2000	이재춘 겸임대사(7월)	
2002	정태익 겸임대사(5월)	
2005	김재섭 겸임대사(10월)	
2006		구리야노프 제2대 대사(2월)
2007	이연수 초대 상주대사(12월)	
2011	강원식 제2대 대사(3월)	칠레비치 제3대 대사(9월)
2013	양중모 제3대 대사(6월)	
2016	김용호 제4대 대사(4월)	폼코프 제4대 대사(6월)
2019	태준열 제5대 대사(5월)	

나. 주요인사 교류

벨라루스 방문		한국 방문
	1991. 9월	케비치 총리
	1992. 3월	코스티코프 부총리
	1992. 8월	슈스케비치 최고회의 의장
정종욱 대통령 특사	1995. 4월	
	1997. 4월	루카센코 대통령
장재룡 외교부 차관보	1999. 12월	
	2001. 3월	마르티노프 외교부 제1차관
이종남 감사원장	2002. 6월	
	2003. 11월	푸카초프 외교부 제1차관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	2004. 4월	
	2004. 5월	푸카초프 외교부 제1차관
	2005. 8월	노비츠키 상원의장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2006. 7월	
	2007. 1월	가이쇼늉 외교부 차관
흥기화 KOTRA 사장	2007. 7월	
	2007. 9월	바리예프 비상사태부 장관
	2007. 11월	시도르스키 총리
	2008. 7월	파블로프 민스크시장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2008. 10월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2008. 11월	
임재홍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2009. 1월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2009. 4월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2009. 9월	
	2009. 11월	리바코프 대통령 외교보좌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2010. 3월	
박시환 대법관	2010. 4월	
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장	2010. 9월	
	2010. 10월	
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장	2012. 4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2012. 5월	
	2012. 6월	아마린 재무부 차관
	2012. 10월	알레이닉 외교부 차관

벨라루스 방문		한국 방문
	2012. 12월	안첵스키 대통령 보좌관
	2013. 10월	세드코 공보부 차관
	2013. 10월	예르모쉬나 선거관리위원장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2014. 3월	
오영호 KOTRA 사장	2014. 3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4. 9월	
	2015. 2월	리바코프 외교부 차관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	2016. 5월	
	2016. 11월	보브크 산업부 장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7. 4월	
김성렬 행정안전부 차관	2017. 4월	
	2017. 4월	슈밀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
	2017. 5월	세마쉬코 경제부총리
	2017. 9월	스비데르스키 산업부 제1차관
	2018. 9월	답큐나스 외교부 차관
	2018. 10월	팔칙 대통령행정아카데미 총장
		슈베드 법과학조사위원장
	2018. 11월	세드코 통신정보화부 제1차관
	2019. 2월	세드코 통신정보화부 제1차관
		체보타리 경제부 차관
		안드로슈 보건부 차관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2019. 3월	
문영기 국가대테러센터장	2019. 9월	야로세비치 경제부 차관
		마투세비치 경제부 차관
	2019. 11월	카라닉 보건부 장관
	2019. 12월	센코 관세위원장

다. 주요협정 체결 현황

- 체결 협정 : 투자보장협정(1997.4월), 이중과세 방지협정(2002.5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2004.5월), 무역협정(2004.5월), 문화협정(2007.11월), 항공협정(2007.11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07.11월)

라. 양국 의원교류 현황

- 우리 의원의 벨라루스 방문 : △제17대 국회 오영식 한-벨 의원친선협회장(2005.7월) △제19대 국회 한-벨 의원친선협회(회장: 신계륜, 2015.1월) △제20대 국회 한-벨 의원친선협회(회장: 이원욱, 2018.1월)
- 벨라루스 의원의 한국 방문 : △노비츠키 상원의장(2005.8월) △유스케비치 벨-한 의원 의원친선협회장(2009.12월) △실로팍 벨-한 의원친선협회장(2011.6월) △네하이치크 벨-한 의원친선협회장(2014.7월)
- 의원친선협회현황

한국 (20대 국회)	벨라루스 (6대 국회)
○ 회장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회장 : 네하이치크 의원
○ 부회장(2명)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윤한홍(자유한국당) ○ 이사(4명) : 금태섭,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정종섭(자유한국당), 박주선(바른미래당)	○ 회원(13명) : 빌축, 보닥, 브리취, 가이두케비치, 데르카치, 지볼, 쿠브라코바, 네바, 니제비치, 파프코프, 레브코베츠, 스타린스카야, 도브리안 의원

마. 한-벨라루스 정례 협의회 운용 현황

- 한-벨라루스 정책협의회

회차	일시	장소	수석대표
제1차	1999.12월	민스크	한국 : 장재룡 외교부 차관보 벨라루스 : 사도하 외교부 차관
제2차	2003.11월	서울	한국 :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벨라루스 : 푸가초프 외교부 차관
제3차	2005.8월	민스크	한국 : 최일송 외교부 구주국장 벨라루스 : 구리아노프 외교부 아주 국장
제4차	2007.2월	서울	한국 : 임근형 외교부 구주국장 벨라루스 : 스테푸스 외교부 아태담당 국장
제5차	2009.9월	민스크	한국 :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벨라루스 : 알레이닉 외교부 차관

제6차	2012.10월	서울	한국 :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 벨라루스 : 알레이닉 외교부 차관
제7차	2013.12월	민스크	한국 : 하태역 유럽국장 벨라루스 : 그린케비치 아태국장
제8차	2015.2월	서울	한국 : 이경수 차관보 벨라루스 : 리바코프 외교부 차관

○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

회차	일시	장소	수석대표
제1차	2007.1월	서울	한국 : 조태열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벨라루스 : 가이쇼늑 외교부 차관
제2차	2008.10월	민스크	한국 :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벨라루스 : 가이쇼늑 외교부 차관
제3차	2012.10월	서울	한국 :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벨라루스 : 알레이닉 외교부 차관
제4차	2016.5월	민스크	한국 :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 벨라루스 : 리바코프 외교부 차관
제5차	2018.9월	서울	한국 :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벨라루스 : 답큐나스 외교부 차관

○ 한-벨라루스 정책기획협의회

회차	일시	장소	수석대표
제1차	2015.9월	서울	한국 :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벨라루스 : 코차노프 외교부 정책기획국장

○ 한-벨라루스 과학기술공동위

회차	일시	장소	수석대표
제1차	2012.6월	민스크	한국 : 서유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벨라루스 : 쥐글리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2017.4월	서울	한국 : 최원호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 벨라루스 : 슈바 국제협력국장
제3차	2019.4월	민스크	한국 :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벨라루스 : 셰르바코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2. 경제·통상 협력 관계

1. 양국간 교역 현황

벨라루스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 자국 경제개발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벨라루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와의 실질협력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1992.2월 한-벨라루스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은 1995-96년에 우리 수출량이 연 200%대씩 증가하는 등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여 2000년에는 1990년대 최고점 대비 약 1/3 수준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이후 양국 교역규모는 2002년 약 18% 급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한 번 50% 이하로 크게 하락했으나 2010년에 다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3년 양국 교역량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2016년 한때 급감하기도 했으나 2017년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다.

2018년 벨라루스에 대한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3% 늘어났으며 수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벨라루스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출	금액	39,171	58,445	43,937	71,372	40,955	47,026	28,469	28,645	32,559
	증감율	64.6	49.2	-24.8	62.4	-42.6	14.8	-39.5	0.6	13.7
수 입	금액	30,093	9,215	38,086	29,654	44,894	46,940	37,163	44,613	44,769
	증감율	259.4	-69.4	313.3	-22.1	51.4	4.6	-20.8	20.0	0.4
총교역	금액	69,264	67,660	82,023	101,026	85,849	93,966	65,632	73,258	77,328
	증감율	115.3	-2.3	17.5	18.8	-17	8.6	43.1	10.4	5.2
무역수지	9,078	49,230	5,850	41,718	-3,939	86	-8,693	-15,968	-12,210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 벨라루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우리의 대벨라루스 수출은 1억2천450만 달러, 수입은 4천5백50만 달러로 양국 교역 규모가 우리측 통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벨라루스와 직접 교역한 거래만을 한-벨라루스 교역으로 간주하는 반면, 벨라루스는 제3국(주로 러시아)을 통한 거래도 한-벨라루스 교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양국간 주요 수출입 품목

대 벨라루스 수출 주요품목	대 벨라루스 수입 주요품목
타이어	칼리비료
기타기계류	집적회로반도체
의약품	기타의 식물
자동차부품	제재목
승용차	철강선
의료용기기	마직물
분석시험기부품	기타 화학공업제품
화학기계	광학기기부품
의료용전자기기	분석시험기
고속도강 및 초경공구	광학기기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3. 경제협력 현황

벨라루스는 러시아 등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투자·교역 환경, 안정된 정치·사회질서, 비교적 낮은 부패지수, EU 및 러시아에 모두 접근가능한 지경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고 벨라루스 정부도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제조업 및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오늘날에도 주요 생산기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양질의 인력도 보유하고 있어 산업기술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여지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한-벨라루스 경제교류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양국 투자·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 미비 △한-벨라루스 관계 전문인력 부족 및 산업별 현지 네트워크 부족 △벨라루스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관료주의와 국제경험 부족 △양국의 상호 인지도 저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양국은 기업 간 교류,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최근 주요 한-벨 경제분야 포럼 개최 현황

- 한-벨라루스 투자협력 포럼
 - 일시 및 장소 : 2017.5.15., 서울
- 한국 수입사절단 벨라루스 방문
 - 일시 및 장소 : 2018.5.21.~22., 민스크
-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일시 및 장소 : 2018.9.5., 서울 전경련회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주한벨라루스대사관 공동주최

2019년 현재 벨라루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이다.

4. 한국-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

한국과 EAEU는 2015.11월~2017.4월간 총 3회에 걸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으며, 2017.9월 양측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EAEU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에 합의했다.

3. ICT 협력 관계

벨라루스는 IT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정보통신기술 수준도 우수하다.⁵⁷⁾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가 ICT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014.9월 민스크 소재 하이테크파크(HTP)에 한-벨라루스 정보접근센터(IAC)가 설치되었다.⁵⁸⁾ 센터 개소는 양국 협력의 산물로 우리 정보화진흥원이 IT 기자재를 지원하고 벨라루스측이 부지를 제공했다.

2017.3월에는 민스크에 한-벨라루스 IT협력센터(ITCC)가 개소되어 양국이 3년간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동 협업과제(전자무역시스템, 국가사이버안보, 국가기록물관리, 국가표준화 등)를 수행하고 있다.

한-벨라루스 IT 협력센터(ITCC) 추진 경과

- (2014.9월) (한)미래부-(벨)통신정보화부 ICT 분야 MOU(양해각서) 체결
- (2015.4월) (한)미래부-(벨)통신정보화부 IT 협력센터 LOI(협력의향서) 교환
- (2016.9월) (한)한국정보화진흥원-(벨)통신정보화부 IT 협력센터 CA(운영협정) 체결
- (2017.3월) 한-벨라루스 IT 협력센터 개소

2017.4월 우리 행정안전부와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는 한-벨라루스 전자정부협력 MOU를 체결하고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과제 발굴,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57. 벨라루스의 소프트웨어(SW) 개발과 IT 아웃소싱은 세계적 수준으로 44개국에 수출 중이며, ICT 분야가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한다. 벨라루스는 약 25,000명의 풍부한 IT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58. 한-벨라루스 정보접근센터는 총 400여명 규모로 IT 교육장, 세미나실, 한국문화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고려인·인적 교류 현황

1. 고려인

벨라루스에는 민스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약 1,300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고려인 동포들은 과거 구소련 시절 학업, 결혼, 군복무 등 개별적인 사유로 벨라루스로 이주해 왔거나,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국어 장려정책에 따라 카자흐 또는 우즈베크 현지어 구사에 어려움을 느껴 러시아어가 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벨라루스로 이주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고려인협회(현 회장 : 이기미)가 창설되어 아리랑가무단, 한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리랑가무단 공연(2019 Feel at home in Belarus 2.0).
아리랑 가무단은 고려인협회 산하에 있으며 고려인 동포 외에 현지인들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한-벨라루스 인적 교류 현황

벨라루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약 70여명 정도다. 한-벨라루스 출입국 현황은 아래와 같다.⁵⁹⁾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벨라루스	-	-	-	-	-	-
벨라루스→한국	928	1,060	1,143	1,449	1,138	1,412

* 2006년 출입국 신고서 폐지에 따라 한국→벨라루스 출국자수 파악 불가

5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5. 교육분야 협력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어 교육, 예술, 과학기술, 스포츠 등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으며,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교육비, 낮은 물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환경과 양호한 치안상황, 외국인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등 해외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나라이다.

벨라루스에는 약 20여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벨라루스 국립대와 민스크 언어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벨라루스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벨라루스 교육기관의 한국어 강좌도 늘어나고 있다. 벨라루스 국립대와 민스크국립언어대가 각각 2002년과 2010년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또한, 2012년 가을학기부터 인문계 고등학교(김나지움) 2곳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2014.1월에는 벨라루스국립대학 내에 민스크 세종학당이 설치되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 대사관 주최 민스크한국영화제



한국알기강좌

주벨라루스한국대사관은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6.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우리나라와 벨라루스는 1992.2월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우리나라가 입후보한 대부분의 국제기구 선거에서 우리나라(또는 우리나라 인사)를 지지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선거에서 벨라루스를 지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북한의 천안함 격침(2010.3월), 연평도 포격도발(2010.11월), 반복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했다.⁶⁰⁾

벨라루스는 국제 평화와 안정 및 중립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⁶¹⁾

60. 2013.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벨라루스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자국의 경험을 강조하며 북한에 핵포기를 촉구했다. 또한 2017.9.3.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튿날 곧바로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61. 벨라루스는 2018년 제1차 및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성명을 발표했다(4.27., 9.20.).

7. 북한과의 관계

1. 외교 관계

- 1991.12월 북한, 벨라루스 국가 승인
- 1992.2월 외교관계 수립
- 1994.5월 조성범 주우크라이나 북한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10월 주러시아 북한 대사, 신임장 제정
- 2008.5월 주벨라루스 북한 무역대표부 개설
- 2016.1월 김형준 주러시아 북한 대사, 신임장 제정
- 2016.9월 주벨라루스 북한대사관 개설
- 2019.4월 주정봉 북한 대사 부임

2. 주요 인사 교류

- 1991.4월 북한 대외경제부 석시엽 차관, 벨라루스 방문
- 1992.1월 벨라루스 대외경제부 Makaedov 차관, 북한 방문
- 1995.5월 벨라루스 대외경제부 Dobromudrov 차관, 북한 방문
- 1997.6월 북한 이인구 외교부 부부장 벨라루스 방문
- 2006.6월 북한 대외경제부 조중호 차관, 벨라루스 방문

3. 양자 관계

- 북한과 벨라루스 간 관계는 무역 및 경제관계에 국한된다.

4. 교역 관계

- 실적

(단위 : 달러)

	2017	2018
벨라루스의 대북한 수출	0	0
벨라루스의 대북한 수입	218,300	72,600

- 벨라루스가 북한에서 수입한 품목은 고분자 화합물, 코티코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의약품, 피리미딘 및 피페라진 화합물이다.

5. 벨라루스-북한 무역·경제협력공동위

- 제1차 회담(북한)
 - 1995.5월 Dobromudrov 대외경제부 차관의 북한 방문 계기에 개최되었다. 양측은 ‘무역·경제협력협정’ 과 ‘무역·경제협력공동위 설치’ 협정에 서명했다.
- 제2차 회담(벨라루스)
 - 2006.6월 조중호 북한 대외경제부 차관의 벨라루스 방문 계기에 개최되었다. 양측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VII. 벨라루스 각 주 개황 및 명소

1. 각 주 개황
2. 민스크시 소재 주요 명소
3. 민스크시 이외 지역의 주요 명소

1. 각 주 개황

1. 고멜주



- 주도 : 고멜(Gomel)
- 위치 : 벨라루스 남동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접경
- 면적 및 행정구역 : 40,400 km², 21개 지구
- 인구 : 약 1,415천명
- 주요 산업도시 : 고멜, 스베틀라고르스크, 모지르, 즐로빈, 레치짜

- 산업현황
 - 고멜주는 벨라루스내에서 산업이 잘 발달된 지역 중 하나이며, 전체 벨라루스 산업 생산량의 약 24%를 담당하고 있다. 주에서 생산되는 산업 생산품의 70%는 해외로 수출된다.
 - 고멜주의 주요 산업은 석유화학(연료), 임업, 경공업, 식품산업, 제철 및 금속 제련업, 기계 공업 등이다.
 - 고멜주의 농업생산 단지는 주 내의 민간 및 산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생산품의 약 50%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 고멜주에서는 매년 180만 톤의 석유가 채굴되고 있으며, 이탄, 석탄, 암염 등의 매장지가 있다. 또한 고멜주 면적의 1/3이 삼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벨라루스의 6개주 중에서 가장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다.
 - 고멜주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사능생태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곳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비텡스크주



- 주도 : 비텡스크(Vitebsk)
 - 위치 : 벨라루스 북동부, 라트비아·리투아니아·러시아와 접경
 - 면적 및 행정구역 : 40,100 km², 21개 지구
 - 인구 : 약 1,180천명
 - 주요 산업도시 : 비텡스크, 폴로츠크, 노보폴로츠크, 오르샤
-
- 산업현황
 - 비텡스크주는 벨라루스 경제 전체에서 연료·석유정제산업의 50%, 전자제품 생산의 45%, 전력생산의 10.8%, 식료품의 8.8%, 경공업 제품의 5.1%, 화학(석유화학 포함) 제품의 1.9%을 담당한다.
 - 비텡스크시는 주 전체 공산품의 16%, 소비재 상품 51%를 생산한다.
 - 비텡스크주 전체 산업구조에서 기계공업 및 금속가공업의 비중은 21.9%이며, 경공업은 29.2%, 식료품 생산은 28.8%, 건축자재 생산은 8.7%, 목재가공업은 4.2%이다.
 - 2019년 현재 비텡스크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에는 독일, 체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영국, 미국, 이스라엘,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등 총 4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케이블, 기계공학, 과학, 건설 자재 및 설비, 화학, 경공업, 식품, 석유 등 분야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7억 9,900만 달러에 이른다.

3. 브레스트주

- 주도 : 브레스트(Brest)
- 위치 : 벨라루스 남서부,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와 접경
- 면적 및 행정구역 : 32,800 km², 16개 지구



- 주요도시 : 브레스트, 바라노비치, 핀스크
- 인구 : 약 1,384천명
- 주요 관광지 : 브레스트 요새, 벨라베쉬스카야 푸샤 국립공원
- 산업현황
 - 브레스트주의 주요 산업은 식품업, 경공업, 목재업, 기계공업, 건축석재업이다. 국가 전체 생산에서 브레스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이다.

○ 대외무역

- 2017년 대외 교역량은 39억 770만 달러(수출 22억 8,930만 달러, 수입 16억 1,84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9% 성장했다.
- 주요 교역상대국은 러시아이며, 2017년 총 교역량은 21억 2,310만 달러(수출 16억 9,030만 달러, 수입 4억 3,28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6% 증가했다.
- 주요 수출품은 유제품, 가구, 가공품, 육류 등이다.

4. 그로드나주



- 주도 : 그로드나(Grodno)
- 위치 : 벨라루스 북서부,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와 접경
- 면적 및 행정구역 : 25,000 km², 17개 지구
- 주요도시 : 그로드나, 리다, 슬로님, 노보그루독, 스모르곤

- 인구 : 약 1,043천명
- 주요 관광지 : 미르성 (UNESCO지정 인류문화유산 등재)
- 주요 지하자원 : 규산염, 갈탄, 철광석, 점토 등
- 산업현황
 - 그로드나주에는 발전용량 302MW 규모의 그로드나 태양열 발전소-2가 가동되고 있다.
 - 국가 전체 산업생산에서 그로드나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이다.
- 대외무역
 - 2017년 대외 교역량은 36억 9,840만 달러(수출 19억 2,920만 달러, 수입 17억 6,92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23.5% 성장했다.
 - 주요 교역 상대국은 러시아이며, 2017년 총 교역량은 18억 6,990만 달러(수출 10억 2,210만 달러, 수입 8억 4,78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24% 성장했다.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절연전선, 트랙터 등이다.
 - 주요 수출기업은 Grodno Azot(질소), Skidel(설탕), Lakokraska(니스, 염료), Zinte(양말), Lida Moloko(우유)이다.

5. 민스크주



- 주도 : 민스크(Minsk)
 - ※ 민스크시는 특별시로서 민스크주와 행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도시이지만 민스크주 주정부는 민스크시에 소재
- 위치 : 벨라루스 중앙부(벨라루스 6개주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와 접경하고 있지 않음)
- 면적 및 행정구역 : 40,200 km², 22개 지구
- 주요도시 : 바리소프, 살리호르스크

- 인구 : 약 1,426천명
- 주요 관광지 : 영광의 언덕, 하틴, 네스비쉬성 등
- 산업현황
 - 민스크주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이다. 석유화학, 칼리비료, 기계 및 금속공업, 식료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칼리비료 생산량 전체와 금속제품의 77%를 생산한다.
 - 제조업체로는 Belaruskali(칼리비료), BelAZ(대형차량 및 건설용 차량 등)가 유명하다.
- 대외무역
 - 2018년 대외 교역량은 131억 3,200만 달러(수출 73억 4,280만 달러, 수입 57억 8,920만 달러)로 2017년 대비 8.9% 성장했다.
 - 주요 교역 상대국은 러시아이며 2018년 총 교역량은 50억 710만 달러(수출 30억 4,300만 달러, 수입 19억 6,410만 달러)로, 2017년 대비 10% 성장했다.
 - 주요 수출품은 치즈류, 유제품,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이다.

6. 모길료프주



- 주도 : 모길료프(Mogilev)
- 위치 : 벨라루스 동부, 러시아와 접경
- 면적 및 행정구역 : 29,000 km², 21개 지구
- 주요도시 : 모길료프, 바브류스크
- 인구 : 약 1,059천명
- 주요 관광지 : 카시미르 교회, 성녀 마리아 교회, 포템킨 골린스키 궁전
- 주요 지하자원 : 시멘트(석회석), 인회토, 토탄, 수자원 등

○ 산업현황

- 국가 전체 생산에서 모길료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9.3%이다. 그 중 식품이 27.6%,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이 21.2%, 화학 제품이 9.4%, 목재 및 제지가 8.5%를 차지한다.
- 주요기업은 JSC Mogilvkhimvolokno(화학), JSC Belshina(화학) 이다.

○ 대외무역

- 2017년 대외교역량은 34억 2,930만 달러(수출 20억 5,570만 달러, 수입 11억 9,36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18% 증가했다.
- 주요 교역 상대국은 러시아이며 2017년 총 교역액은 20억 3,510만 달러(수출 12억 8,030만 달러, 수입 7억 5,48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3.2% 감소했다.
- 주요 수출품은 주류(맥주), 육류, 부직포 등이다.

2. 민스크시 소재 주요 명소

수도 민스크는 약 940여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벨라루스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독립국가 연합(CIS)의 사무국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재건되어 도시 미관이 매우 아름답고 깨끗하다. 도로망 또한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역사적인 유적이나 옛 건축물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대부분의 관광 명소들은 민스크 중앙로인 독립대로(Ave. Nezavisimosti, 뿔로스뻬트 니자비시모스치)에 따라 위치해 있다.

1. 독립 광장 (Independence Square, 뿔로샤지 니자비시모스치)



민스크 시내를 관통하는 독립대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청사, 벨라루스 국립대, 시청과 중앙우체국, 그리고 가톨릭성당과 민스크호텔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정부청사 앞에는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 동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독립광장 지하에는 광장 전체 넓이만한 쇼핑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2. 가톨릭성당 (시몬과 헬렌 성당) (St. Simeon and St. Helen Roman Catholic Church, 까스쥘 스바뜨흐 시모나 이 엘렌니)

독립광장 옆에 위치한 가톨릭 성당으로 외벽이 붉은 벽돌로 지어져 『붉은 성당』(끄라스니 까스쥘)이라고도 불린다. 공식 명칭은 시몬과 헬렌 성당으로 1908년에 착공되어 1910년에 완공되었는데 전쟁의 포격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성당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져 내려온다. 『시몬과 헬렌은 당시 민스크의 덕망 있고 부유한 귀족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자녀를 모두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에 자신들의 전 재산을 헌납하여 성당을 지어 하느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게 된다. 성당 건물 중심에 있는 큰 탑기둥은 부모인 시몬과 헬렌을 상징하고,

이와 마주하고 있는 두개의 작은 탑기둥은 젊어서 세상을 떠난 두 자녀를 상징하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넋을 기리고자 했다.』 구소련 시절에는 영화관과 카페로 전용되었다가 90년대 이후 가톨릭에 귀속되었다.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붉은 색의 아름다움과 헌납자의 마음이 잘 표현된 건물이다.

3. 10월 광장(October Square, 악짜브리스카야 뿔로샤지)

민스크 시내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주위에 공화국 궁전, 문화궁전, 전쟁박물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등이 위치해 있다. 공화국 궁전은 구소련 시절 공산당 전당대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현재는 주로 문화공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 외곽은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 위치한 레닌의 묘를 본떠 건립되었다. 10월 광장에는 0km 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는 민스크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심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0 km 이정표

4. 성령성당 (Holy Spirit Cathedral, 스바또-두호프 까페드랄니 사보르)



민스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로 스비슬로치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성령성당은 1642년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러시아정교회 사원으로 전쟁의 참화가 빚겨간 유적 중의 하나이다. 내부에는 러시아정교회를 상징하는 많은 성상과 성화가 있어 이를 감상할 수 있고 일요일 오전에 방문하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참관할 수 있다.

5. 삼위일체 마을 (The Trinity Suburb, 트로이쯔까야 브레드메스지예)

민스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지 않은 지역으로 18~19세기 민스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다. 민스크를 가로 지르는 스비슬로치 강변에 위치해 있고 붉은 계통의 낮은 건물은 중세 유럽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6. 눈물의 섬 (Island of Tears, 오스트라프 슬료스)



스비슬로치 강변에 위치한 섬으로 아프가니스탄 참전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이다. 구소련 시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패배한 전쟁으로 취급되어 전사자들과 참전용사들이 어떤 보상과 대우도 받지 못했다. 구소련 해체 후 전사자들의 어머니들과 미망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념비 건립을 추진했는데 기념비의 형상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인들의 슬픔을 가슴 저리게 표현하고 있다. 기념비 중앙에는 러시아 정교회 사원을 본딴 조형물이 있고 내부에 돈을 던져 그들의 넋을 추모할 수 있도록 헌금 향아리가 있다.

7. 승리 광장 (Victory Square, 벨로샤지 빠베드)

벨라루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국민의 30%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많은 기념비가 산재해 있는데 승리 광장은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념비에 속한다. 독립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전승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다. 주말이면 구소련식 전통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예식을 마치고 기념비에 헌화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축일에는 절도 있는 군인들의 근무 교대식을 볼 수 있는데 민스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운 볼거리이다.



8. 전쟁박물관 (State Museum of War, 무제이 이스토리이 벨리코이 아찌체스트벤노이 바이니)



10월광장 옆에 위치하고 있고 구소련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전쟁 박물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개관되었다. 1941-1945년까지의 전쟁 상황에 대한 기록문서와 사진, 전투상황과 무기, 그리고 유격대들의 활약상이 나타난 기록물을 전시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관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 순으로 진열되어 관람자들의 역사 이해를 돕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의 구소련 시대 무기 발전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실물 전시를 해놓고 있으며 전쟁의 참혹함과 조국의 소중함을 후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9. 국립미술박물관 (National Art Museum of Republic of Belarus, 나찌아날니 후도췌스트 벤니 무제이)

벨라루스의 최대 미술박물관으로 2만 6천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중세와 근대에 걸친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가톨릭과 러시아정교회의 성상과 성화들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부터 20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유명 화가들의 습작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으며 또한 원본을 복사한 미술품들도 있다.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화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시간을 넘나들며 예술 관람을 즐길 수 있다. 2009.5.18.에는 국립미술박물관 내 한국실이 개설되어,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있다.



한국실 전시품

10.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나찌아날나야 비블리아ჟ까)



지식의 보화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루카센코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건립된 도서관이다. 2006년 6월 개관했으며, 높이는 72.6m, 연면적 112,600㎡로 벨라루스를 상징하는 현대식 건축물이다. 도서관으로의 기본시설 이외에 고서 박물관, 미술 박물관, 전망대, 인터넷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3. 민스크시 이외 지역의 주요 명소

1. 미르성 (Mir Castle, 미르스끼 자모크)

민스크에서 남서쪽 브레스트 방면으로 약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16세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성벽의 높이는 13m이다. 구소련시절에는 방치되어 있다가 1990년 독립 이후 국가 시책으로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현재는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UNESCO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벨라루스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여름에는 중세 전투를 재현하는 축제가 개최되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 샤갈 박물관 (Chagall's Museum, 무제이 샤갈라)



세계적으로 색채의 미술사 또는 표현주의의 대가라 불리는 샤갈(1887~1985)의 생가가 비렙스크에 위치하고 있다. 샤갈은 제정러시아 시대에 출생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화가인데 볼셰비키 혁명 이후 그의 자유분방한 작품 세계가 사회주의 정권의 눈에는 거슬렸기 때문에 추방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샤갈은 유럽에서의 명성과는 달리 구소련 당시에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으며,

당연히 샤갈의 생가 보존에도 무관심했다. 최근에야 뜻을 같이한 사람들에 의해 생가가 복원되었다. 샤갈의 생가에서 비록 그의 위대한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유년기 작품 및 습작, 그가 사용했던 소지품들을 통해 그의 예술적 영감의 태동은 직접 느껴볼 수 있다.

3. 네스비쉬성 (Nyasvizh, 네스비쉬스키 자모크)



민스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네스비쉬성은 벨라루스에서 가장 부유했던 봉건 영주이며 귀족인 라드지빌스가의 거주 지역으로 16세기경에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전해지며, 벨라루스 식이 가미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성은 넓은 벌판에 인공으로 만든 둑과 요새 그리고 수로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모습을 자랑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숨겨놓은 많은 보물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이런 이유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뜻밖의 행운을 마음에 품고 보물을 찾는다고 한다. 구소련 당시에는 휴양지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벨라루스를 상징하는 하나의 고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4. 민속촌 (Dudutki, 두두뜨끼)

민스크에서 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민속촌은 19세기의 벨라루스 전통 민속마을의 모습을 재현한 곳이다. 대형 풍차와 도기 제조소, 그리고 대장간과 보드카를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장비도 전시되어 있다. 동물원과 자동차 박물관, 마차 박물관과 함께 전통 음식과 전통술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갖추어져 있다. 여름에는 전통춤, 음악,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5. 브레스트 요새 (Brest Fortress, 브레스츠히야 크레빠스치)



폴란드와 접경한 국경도시 브레스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벨라루스 전 지역에서 민간인이 중심이 된 유격대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었는데 그중에 브레스트 요새를 거점으로 활동한 유격대가 나치군의 소련 침공 후 최초(1941년)로 독일군

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무명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조형물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다. 지금도 남아있는 요새의 붉은 벽은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핫틴 (Khatyn)

민스크에서 북쪽으로 약 5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치 독일군의 잔학성을 고발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1943.3.22. 독일군이 핫틴 마을에 진입하여 마을 주민을 한곳에 가두고 불을 질러 학살했는데 희생자 149명 중 75명이 어린 아이들이었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인 한 할아버지가 희생된 손자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당시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비석들이 조성되어 있고 매 30분마다 울리는 타종 소리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혹성과 조국애를 상기 시키고 있다.



7. 영광의 언덕 (Mound of Glory, 쿠르간 슬라빅)



민스크 국제공항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소련군과 나치 독일군 간의 치열했던 탱크전이 있었던 장소에 세워진 기념탑이다. 소련군은 이때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독일까지 진격하게 된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벨라루스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 고향의 흙을 직접 가지고 와서 쌓아 언덕을 만들고 정상에 기념비를 세운 후 이를 영광의 언덕이라 명명했다. 정상에 올라가면 벨라루스의 드넓은 평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VIII. 부록

1. 주요 인사 인적 사항
2. 국제지수로 보는 벨라루스

1. 주요 인사 인적 사항

가. 대통령

성 명	알렉산더 그리고리예비치 루카센코 (Aleksandr Grigoryevich LUKASHENKO)	
생년월일	1954. 8. 30. 비텡스크주 출생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 모길료프 교육대학(역사학부) 졸업 ○ 1985 벨라루스 농업아카데미 졸업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1978 모길료프시 공산청년동맹위원회 서기 ○ 1979-1991 소련 공산당원 ○ 1983-1985 슈클로프 건설자재 콤비나트 부공장장 ○ 1985-1987 슈클로프 지방 집단농장 당 위원회 서기 ○ 1987-1990 슈클로프 집단농장 고로데프 농장장 ○ 1990-1994 벨라루스 최고회의·의회 의원 ○ 1993.4월-1994.7월 벨라루스 최고회의 반부패위원장 ○ 1994.7월 대통령 당선 ○ 2001.9월 대통령 재선 ○ 2006.3월 대통령 3선 ○ 2010.12월 대통령 4선 ○ 2015.12월 대통령 5선 	
방한경력	○ 1997.4.21.-23. 공식 방문	

나. 총리

성 명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루마스 (Sergei Nikolaevich RUMAS)	
생년월일	1969. 12. 1. 고멜시 출생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 소련 야로슬라블 사관학교 ○ 1995 벨라루스 내각 산하 행정아카데미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1994 벨라루스 중앙은행(National Bank) 회계운영과장 ○ 1995-2002 벨라루스은행 지점장 ○ 2002-2005 벨라루스은행 부총재 ○ 2005-2010 Belagroprom 은행 총재 ○ 2010-2012 부총리 ○ 2012-2018 벨라루스 개발은행 총재 ○ 2018.8월 총리 	
비 고		

다. 외교장관

성 명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마케이 (Vladimir Vladimirovich MAKEI)	
생년월일	1958. 8. 5. 그로드나주 출생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 민스크 외국어 교육 연구소 ○ 1993 오스트리아 외교아카데미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1995 외교부 인도협력국, 정책분석국, 장관실 근무 ○ 1995-1996 외교부 의전실 차석 ○ 1996-1998 주불 대사관 참사관 ○ 1999-2000 외교부 유럽국장 ○ 2000-2008 대통령 외교보좌관 ○ 2008-2012 대통령행정실장 ○ 2012.8월 외교장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혼, 자녀 3명 ○ 독일어, 영어 구사 	

라. 상원의장

성 명	미하일 블라디미로비치 마스니코비치 (Mikhail Vladimirovich MYASNIKOVICH)	
생년월일	1950. 5. 6. 민스크주 출생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 브레스트 토목공학 대학 ○ 1989 민스크 공산당 단과대학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1984 민스크시 소련 인민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 1985-1986 민스크 공산당 위원회 서기장 ○ 1986-1990 벨라루스 사회주의 공화국 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 ○ 1991-1994 벨라루스 상원 부의장 ○ 1994-1995 부총리 ○ 1995-2001 대통령 행정실장 ○ 2001-2004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 ○ 2004-2010 국립과학아카데미 상임이사회 의장 ○ 2010-2014 총리 ○ 2014-2016 제5대 상원의장 ○ 2015.1월 제6대 상원의장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혼, 1남 1녀 ○ 영어, 불어, 폴란드어 구사 	

마. 하원의장

성 명	블라디미르 파블로비치 안드레이첸코 (Vladimir Pavlovich ANDREICHENKO)	
생년월일	1949. 4. 15. 비텟스크주 출생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 벨라루스 벨릴코룩스키 농대 졸업 ○ 1988 민스크 고위정당학교 졸업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1978 집단농장(Adamenki) 당위원회 서기 ○ 1978-1981 비텟스크주 리오즈넨스키시 집단농장장 ○ 1981-1985 리오즈넨스키시 농업위원회 위원장 ○ 1985-1987 리오즈넨스키시 시장 ○ 1987-1991 베르흐네드빈스키시 공산당 제1서기, 시의회 부의장 ○ 1991-1994 비텟스크주 부주지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 1994-2008 비텟스크주 주지사(상원의원 겸임, 3선) ○ 2008-2012 제4대 하원의장 ○ 2012-2016 제5대 하원의장 ○ 2016.10월 제6대 하원의장 	
비 고	○ 기혼, 1남 1녀	

바. 한-벨 의원친선협회장

성 명	악사나 블라디미로브나 네하이치 (Oksana Vladimirovna NEKHAICHIK)	
생년월일	1967. 1. 8. 민스크시 출생	
학 력	○ 1989 민스크 국립사범대 물리수학과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1999 민스크 19번, 58번, 112번 학교 물리수학 교사 및 교감 ○ 1999-2011 민스크시 자뻬스키구 부교육감 ○ 2011-2012 민스크시 자뻬스키구 교육감 ○ 2012-2016 제5대 하원의원, 인권·국제관계·언론위원회 부위원장 (벨-한 의원친선협회장) ○ 2016 제6대 하원의원, 교육·문화·과학위원회 위원 (벨-한 의원친선협회장 연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혼, 1남 ○ 2014.7월 국제교류재단(KF)의 초청으로 방한 	

2. 국제지수로 보는 벨라루스 (2017-2019)

작성기관	지 수	내용 (단위)	세계순위	비 교		
			벨라루스	한 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UN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	53	22	49	88
UN	Life Expectancy Index 기대수명	73.1(세)	119	12	130	121
UN	Population Growth Rate 인구증가율	0.12(%)	95	28	9	194
UN	Education Index 교육지수	-	53	22	49	88
The Legatum Institute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행복한 나라지수	-	89	35	96	111
New Economic Foundation	The Happy Planet Index 행복지수	-	102	80	116	70
The World Bank	Health Expenditure 1인당 의료비 지출	GDP 6.1(%)	94	29	69	130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성과지수	-	44	60	52	109
UN	Child Mortality Rate 영아 사망률	1000명 / 3.7명	171	178	141	131
Charities Aid Formation	The World Giving Index 세계기부지수	-	121	30	110	81
KOF Swiss Economic Institute	KOF Index of Globalization KOF 세계화지수	-	64	34	49	32
UN	Urban Population 인구도시집중지수	전체 / 78.1%	50	39	62	73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Vehicles Per Capita 차량보유지수	1000명 / 369명	50	42	49	76
UN	Homicide Rate 살해사망률	10만명 / 3.6명	115	72	21	120

자 료	제 목	내용 (단위)	세계순위	비 교		
			벨라루스	한 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lobal Peace Index 세계평화지수 (Lowest=Best)	-	61	116	13	10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University of Maryland	The Global Terrorism Index 세계테러지수	-	137	114	34	21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언론자유지수		153	41	149	102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인식지수	-	70	45	138	120
The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GDP) GDP성장지수	-	79	11	12	59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경제자유도지수	-	107	27	106	148
The World Bank	Gross National Income (GNI) 1인당 GNI	4,710(\$)	101	35	73	143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글로벌경쟁력지수	-	비회원	26	45	79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지수	-	37	5	31	7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Enabling Trade Index 무역환경지수	-	비회원	27	111	95
The World Bank	The Knowledge Economy Index 지식경제지수 (0=lowest & 10=highest)	-	58	29	54	55
INSEAD	The Global Innovation Index 글로벌이노베이션지수	-	86	12	46	43

자 료	제 목	내용 (단위)	세계순위	비 교		
			벨라루스	한 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UNESCO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연구개발지출	-	43	2	27	42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CT Development Index 정보화개발지수	-	32	2	45	79
The World Economic Forum	Networked Readiness Index 네트워크준비지수	-	비회원	13	41	64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ternet Development Index 인터넷개발지수	-	32	2	45	79
UN	The UN Global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전자정부개발지수	-	38	3	32	82

벨라루스 개황

- 인 쇄 | 2020년 2월
- 발 행 | 2020년 2월
- 발행처 | 외교부 유럽국 중유럽과
- 디자인 | 주)마스타상사
- 인 쇄·제 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Belarus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49-14